



IBK기업은행은 희망일기장입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이 자라고 꿈이 현실이 되는 나라
IBK기업은행이 희망으로 써내려가겠습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여성시대

양희은 · 서경석입니다

이달의 편지
10년 후, 전국여행을 하고파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바다가 보이는 즐거운 나의 집

2015 December

12



어마무시하게 불.편.하.다.

ARS 통해 3분이나 걸리는 일일이 달력을
법인카드 한도조회 체크해야 하는
팀원들 일정확인

인터넷뱅킹에 들어가야 하는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법인통장 거래내역 확인 법인카드 영수증 관리
아무리 보내도 확인하지 않는 이메일을 통한 업무협의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을까?

기업카드 1등이 만든 서비스 IBK bizpresso

2015.6월말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법인 신용 및 체크카드 이용금액기준 1등

기업의 성공을 위해 IBK카드가 제공하는 혁신적인 업무도구 모음사이트 | 이용대상 : IBK카드 이용기업 및 해당기업 임직원

www.ibkbizpresso.com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15-2645호 (2015.11.09) CP062 **계시기간** - 2016.11.10

• 개별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9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만을 받지 않습니다. 유관금융 위변사상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39-7490, e-mail : ibkwhites@ibk.co.kr)
- 신용카드 사용, 깊어야 할 빛입니다. - 연체이자율(최저 연 16.5%~최고 연 24.0%)은 정상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IBK법인카드 신청 시 각 상품의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1
바다가 보이는 즐거운 나의 집

10 이달의 편지
10년 후, 전국여행을 하고파 외

68 행복을 찾는 사람들
박술녀한복 박술녀 대표

76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2
내 생애 최고의 해

82 코너 속 편지
특공연대 대항군 외

106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정리 습관

110 서경석의 스튜디오에서
경험은 늙지 않는다

112 행복한 책 읽기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15년 12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광한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서경석 **프로듀서** 이한재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59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에딕(02-3443-8005) **표지 작가** 최숨이 **월간지**(비매물)

※ 본지는 한국도서관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위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마산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간월막) / 97.1(삼대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바다가 보이는 즐거운 나의 집



전남 고흥군 두원면 김나연 씨를 찾아서

글 | 성기에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누구나 마음에 한 가지 이상의 꿈을 품고 살고 있다. ‘언젠가는’ 꼭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을 꿈이라, 소망이라, 희망이라, 로망이라 부르며 살고 있

으리라. 어미 새가 알을 품듯 따뜻한 가슴으로 살뜰하게 품었던 그것이 어느새 깨어 나와 푸드득 소리를 내며 날갯짓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게 우리들 삶이 아닐까.

여성시대 가족 김나연 씨와 남편 이성호 씨에게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이 먹어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결혼 32년 차로 이제 육십 고개를 바라보는 부부에게 꿈은 현실이 되었다. 골목어귀마다 노란 유자가 해맑게 웃으며 반겨주는 전남 고흥군 두원면에 평생의 소망을 보란 듯이 펼쳐놓았다.

남해바다를 통째로 바라보기 위해 남쪽으로 창문을 내었고, 집 뒤



와 옆은 나지막한 숲이 호위를 하고 있고, 걸어서 10분이면 소나무 우거진 해수욕장이 나온다. 그 해수욕장을 끼고 돌면 방조제가 나오는데, 낚시대 하나 돌려메고 나가 감성돔과 송어를 낚고 꽃게를 잡고 망둥이도 잡아 올릴 수 있다. 집 앞마당에 철따라 피는 꽃을 심고, 향기로운 과일나무를 심어 사시사철 싱그러움을 마당 가득 들여놓을 작정이다.

부부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딱 세 번을 만나고 결혼식을 올렸다. 만남 지 석 달 만에 이루어진 말 그대로 전격적인 결혼이었다. 남편의 자상하고 해사한 얼굴이 마음에 들었고, 아내의 따뜻하고 야무진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알뜰하게 삶을 가꾸나갔다. 남편은 탄탄한 규모의 회사를 다니기도 했고, 이발 기술을 배워 이발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유난히 목이 약한 남편은 인후염을 달고 살았다. 그래서 공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쉬 피곤해지며 기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느껴 병원을 찾았는데 갑상선암이라고 했다. 갑상선암은 예우가 좋은 암으로 알고 있지

만 이미 남편은 인후와 임파선에 전이된 상태였다. 2년 전, 암 수술을 받고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남편이 수술실에 들어가고 아내 김나연 씨는 수술실 앞의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내내 서서 기다렸다. 퇴원을 하고 나서 남편은 집에서 쉬게 되었다. 남편의 병원비에 많은 돈이 들어갔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내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몸이 아픈 남편을 위해 귀촌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동안 짬짬이 둘러본 지역을 바탕으로 앞으로 살집을 알아보다가, 고흥에 나온 밭 600평이 눈에 번쩍 들어왔다. 손에 쥐고 있던 돈과도 대략 맞고 바다가 한눈에 보이고 공기가 청정하다는 것이 마음에 꼭 들었다.

봄에 땅을 사고 여름부터 집 공사에 들어갔다. 아내는 부산에서 생활비를 위해 돈을 벌고 남편은 차에서 잠을 자며 집을 지었다. 그리고 드디어 11월 1일 이사를 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가 좋아한 묘목을 사서 마당 둘레에 심었다. 지금은 막대기처럼 꽃혀있는 대봉, 단감, 복숭아, 자두, 사과, 살구나무에서 내년 봄이면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것이다.

아직은 집만 덩그러니 앉아 있지만 내년 봄 넝쿨장미와 다래덩굴을 심을 것이다. 수돗가와 테라스는 온통 아내가 좋아하는 색인 빨강색으로 칠했다. 아픈 남편의 병수발을 정성 담아 해내고 있는 아내를 위한 남편의 마음이 집 구석구석에 담겨있다.

부부가 바닷가를 고집한데는 이유가 있다. 부부의 공동의 취미가





낚시이기 때문이다. 젊어서부터 낚시를 다닌 남편은 결혼 후 아내에게 낚시를 하자고 권했다. 심드렁하게 따라나섰던 아내가 첫날부터 손맛을 제대로 보며 낚시에 푹 빠져 들었다. 첫날 길이 30센티미터가 족히 넘는 농어를 30여 마리나 잡았으니 낚시에 흠뻑 빠진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부부는 그렇게 승합차를 타고 낚시를 다녔다. 처음에 아내가 남편을 따라 나선 건 만성인후염으로 공기 좋은 곳을 다녀야하는 남편을 위해서였지만 이젠 아내가 먼저 낚시가방을 챙기는 날이 많아졌다.

아내는 요즘 이주 일에 한 번 정도 남편이 있는 고향에 온다. 아직도 집 단장에 할 일이 많지만 시간이 나면 낚시대를 둘러메고 근처 바닷가로 나선다. 남편은 꼼꼼하게 낚시밥을 꿰어주고 아내가 건져 올린 물고기를 잘 갈무리한다. 즉석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를 손질하여 아내는 매운탕을 기가 막히게 끓여낸다. 우선 냄비에 물을 넣고 물이 팔팔 끓으면 갓 잡아올린 물고기와 야채를 넣고 끓인다. 이렇게 끓여내야 비린 맛이 없고 개운하단다. 20여 년 매운탕을 끓여왔으니 어디 맛있다는 집보다 더 맛나다고 남편은 아내 자랑에 여념이 없다.

울산이 고향이고 젊은 날을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오리지널 경상도 사나이는 과묵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조근조근 말도 잘하고

행동도 부드럽기 이를 데 없다. 그에 비해 아내는 말수도 적고 매사 조심스러운 편이다. 두런두런 이어지는 남편의 이야기에 아내는 적당한 때를 맞춰 고개도 끄덕이고 가끔 맞장구도 치며 부부의 대화는 끊이질 않는다.

아내는 앞으로 한 2년간은 부산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2년 후면 만 62세 이후 받을 수 있는 남편 앞으로 나오는 몇 십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할 작정이다. 따뜻한 남쪽이니 겨울에도 채마밭을 가꿀 수 있고, 식탁에 올릴 생선은 낚시로 너끈하게 잡을 수 있으니 먹고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

봄이 오면 집 옆으로 온갖 채소를 심고 남편의 병에 좋다는 약초를 심고 가마솥에 불을 지펴 잡곡 넉넉히 넣어 밥을 지을 것이다. 직접 담근 구수한 된장에 마른 무청을 삶아 넣고 바다에서 건진 꽃게도 한 마리 푹 던져 넣고 국을 끓일 것이다.

그리고 밤이면 복숭아꽃, 살구꽃이 달빛 아래 낭창낭창 거리면 불을 끄고 누워 멀리 들리는 파도 소리를 베게 삼아 잠이 들 것이다. 천천히 느리게 오는 밤처럼 그렇게 느린 삶을 즐기며 살아갈 것이다.





딱 일 년 전 일입니다. 여성시대 앞으로 난데없이 저금통이 하나 배달되어 왔습니다. 딱딱딱 연필로 쓴 편지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금릉초등학교 1학년 1반 22번 김선윤입니다.

엄마 심부름 하면 100원.

신발장 정리하면 200원.

아빠 심부름 하면 200원.

제가 용돈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엄마한테 목도리를 사드리고 싶어 모았는데

여성시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고 싶어 보냅니다.

올해는 제가 심부름도 열심히 안하고

라자도 사먹어서 조금밖에 못 모았어요. 죄송해요

내년에는 더 많이 모으겠습니다.

- 김선윤 올림

그 마음이 너무도 예뻐 여성시대 제작진의 마음에는 환한 불이 하나씩 커진 듯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편지와 저금통이 날아들었습니다. 김선윤 학생이 보낸 거였습니다.

이달의 손편지는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서 보낸 김선윤 학생의 고운 마음을 함께 실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즈음 우리 마음에 군불을 지펴준 어린 학생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 12 10년 후, 전국여행을 하고파
- 14 연탄의 추억
- 20 내 동생 동철이
- 25 남편의 두 개의 생일
- 28 사랑하는 큰누나에게
- 33 오토바이 세계일주 그 후 1년
- 37 내 기억 속의 엄마는 천사
- 41 손자와의 관계개선, 어떡해야 할까요?
- 44 싱글대디의 좌충우돌 소풍
- 48 어머니의 수루메 김밥
- 53 재활용품 수거 일, 점점 더 어려워져
- 56 잿더미가 된 유물들
- 59 갑작스런 아들의 군 입대

일러스트 | 이경선
chungpo@naver.com





저는 60번째 생일을 맞은 여성시대 30년 차 애청자입니다. 60년의 세월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온 저 자신에게 애썼다는 위로와 함께 앞으로의 삶에 더 분발하자는 다짐의 뜻으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60번째 생일을 맞으며 새로운 꿈 하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롯이 나만을 위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 5,000원씩 모아 10년 후에 자그마한 중고차를 하나 구입하여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꿈입니다. 뒤에다가 커다랗게 <노인운전>이라 써 붙이고서요. 여행 중 경비가 모자라면 남의 과수원에서 과일을 수확해주고 끼니라도 해결하면서 말입니다. 목적지도 없이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으면서 발길 닿는 대로 눈길이 가는대로 여유 있는 여행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결혼생활 36년 동안, 25년간 조그마한 순대가게를 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15년 전부터는 아픈 남편을 돌보느라, 최근에는 두 아이를 결혼시키느라,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옆을 돌아볼 겨를도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이름 하나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싸구려 옷과 슬리퍼를 사 신으며 생활해 왔지만, 내 삶에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내일을 맞이하자'가 제 생활철학입니다.

아픈 남편을 돌봐야하고, 병원비와 약값에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내 꿈을 위해 하루 5,000원씩의 저금은 꼭 실행하려고 합니다.

아이 둘을 결혼시키면서 부모로서 특별한 도움은 못주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결혼은 시켜 놓았으니 자기들 앞가림은 하겠지요. 앞으로도 아픈 남편을 계속 돌봐야하니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지요!

그런데 과연 제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두 분께서도 응원해주세요. 어려운 이들이여, 열심히 삽시다. 힘냅시다.



며칠 전,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간다며 우비와 고무장갑을 챙기는 중학생 딸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연탄은 그저 '검정 고무신' 같은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겠지만 나이 좀 드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연탄에 얽힌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예전에 연탄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족 같은 존재였죠.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나무로 난방과 취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대한제국 시절, 일본인이 평양에 연탄공장을 세우면서 이후 연탄이 사용되기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연탄을 쓰게 된 건 1960년대부터였는데 연탄 사용량이 늘면서, 나무 땔감을 쓰지 않아 산림녹화에 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연탄은 나무와 달리 연기도 많이 나지 않고, 화력도 세고, 모양도 균일해서 일정하게 쌓아놓기도 쉬웠지요. 그래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집집마다 연탄을 들여놓기 시작했는데, 형편에 따라 몇 백 장씩 쌓아놓는 집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집도 있었습니다. 벽에 시키면 연탄 자국이 선명했던 연탄광. 그 광에 연탄이 한 장, 두 장 쌓이기 시작하면 어린 저는 뭐가 그리 좋았던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결국 걸리거러다며 어머니에게 혼나기 일쑤였죠.

그때 어머니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이 묻어나곤 했습니다. 어렸을 땐 그 표정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건 아마 온 가족이 추위에 떨지 않고 무사히 겨울나기를 바라는 걱정과 바람이 더해진,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이 본격적으로 쌀쌀해지면, 아버지는 솥을 이용해서 연탄에 불을 붙이셨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번개탄'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이때부터 얼마나 불붙이기가 수월하던지... 번개탄을 처음 사용하던 날, 성냥불을 대자마자 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연기와 불꽃이 피어올라서 옆에서 구경하던 바둑이가 놀라 골목으로 줄행랑 쳤던 기억도 납니다.

연탄에 불이 붙으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때 갈아주는 게 중요했어요. 이걸 가족 구성원들의 공통된 임무였습니다.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날에는 형과 누나가 연탄불을 갈았는데, 서로 나가기 싫어서 미루기도 하고 그러다가 불을 꺼뜨리면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연탄불을 피워놓느라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가끔 어린 제가 연탄을 갈 때도 있었는데 연탄구멍을 맞추느라 아궁이로 고개를 숙이면 흑~ 하고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탄가스가 올라왔죠. 그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뜨끈뜨끈한 아랫목의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였기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탄을 갈 때, 어쩌다 연탄 두 장이 붙어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어머니는 부엌칼을 이용해서 해결하셨는데, 가끔 연탄이 부서지기도 해서 연탄끼리 붙는 걸 막기 위해 연탄 사이에 신문지를 끼워 넣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아궁이로 통하는 공기구멍을 조절해서 연탄의 화력도 조절했는데, 연탄을 아끼기 위해 공기구멍을 항상 작게 열어놓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어머니 몰래 공기구멍을 완전히 열어놓았다가 연탄이 흘러당 다 타버려서 연탄집게로 맞을 뻔한 적도 있었지요.

어쨌든 방 안에서든 허연 입김을 볼 수 있고, 뒷목에 있던 걸레가 얼 정도로 추웠던 그 시절, 연탄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온 가족은 일치단결(一致團結) 할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론 그것이 다툼의 불씨가 되기도 했으니 그 시절 연탄은 참으로 위대한 힘을 가진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연탄불이 항상 따뜻한 아랫목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먹을거리들이 연탄불 위에서 새로운 맛으로 탄생하기도 했죠. 그 중 백미는 고등어구이였습니다. 연탄불 위에 걸쳐놓은 석쇠에서 지글거리며 노릇노릇 구워지던 고등어, 그 냄새만으로 이미 저녁 밥상을 점령했었습니다. 또 김에 들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뿌려서 윤기가 자르르 하게 굽거나, 그냥 맨 김을 구워서 양념간장에 콕 찍어먹으면, 그 맛은 요즘 사 먹는 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점심때면 가끔 연탄불 위에 올린 양은술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 안에서 눈처럼 하얀 찌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실 땐, 뭘로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쫄면도

은 불량식품을 연탄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국자에 설탕을 녹여 ‘뽕기’를 해 먹다가 국자를 시커멓게 태워 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까지 형제들과 함께 초조해했던 기억도 납니다.

연탄과 관련해서 항상 즐거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누나는 아침에 머리를 감고 연탄불 위에서 머리를 말리다가 앞머리를 홀라당 태워서 울면서 학교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헤어드라이기가 없었던 시절의 웃지 못할 기억입니다.

또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생명이 위독해졌다는 사고 소식도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했는데,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제 형도 연탄가스를 맡고 몽롱한 상태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재래식 화장실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옆집 아저씨까지 달려와서 함께 꺼낸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 학교에서 형의 별명이 ‘냄새나는 혼수상태’였다고 합니다.

연탄가스에는 김치국물이 좋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족 중 누가 어지럽다고 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김치국물을 들이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탄의 원료인 무연탄을 캐내는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 광부들이 다치는 사고도 종종 있었는데 TV에 그 장면이 생중계돼서 온 국민이 가슴 졸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했던 연탄은 속죄하는 마음이었는지 마지막 가는 길엔 병환이 된 골목길 위에서 자기 몸을 산산이 부수고, 뿌연 재가 되어 우리들의 안전을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연탄이 언제부터가 서서히 사람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했죠. 80년대까지 절정을 이루던 연탄의 사용량이 점점 줄어든 데에는 사용하기 훨씬 편한 석유와 천연

가스가 보급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탄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걱정할 일이 없어져서 편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가족,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하나가 쑥 하고 사라진 것 같아 한편으론 아쉽기도 합니다.

연탄이라는 존재 덕분에 가족끼리 공동체인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웃에게 연탄불을 빌리러 가거나 대신 갈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정을 쌓아가던 그 시절. 그 시절이 그림기도 한 걸 보면, 뭔가 얻으면 또 다른 무언가를 잃게 되는 건, 세상 이치인 것도 같네요.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사라진 듯한 연탄은 이제 고깃집에 가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다녀온 중학생 딸이 그러더군요.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집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린 정말 행복한 거야. 그치 엄마?”

정말 그렇습니다. 연탄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기엔 아직 어려운 분들이 주위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연탄은 추억이 아니라 현실이겠지요. 예전엔 살기 어려워도 형편이 다들 비슷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진 않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TV 드라마만 봐도 상류층 가정만 보이는 것 같고 채널을 돌리면 온통 맛있는 음식 얘기뿐이니 춥고 배고픈 이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클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연탄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좀 옆으로 샌 것 같지만, 연탄의 속성인 파스함으로 세상을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자 적어봅니다.



10 월 초, <형아, 저녁에 소주 한잔 하자. 형수님도 꼭 같이 데리고 온나. 알았제.> 동생의 뜻밖의 문자에 의구심만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저는 동생이 만나자던 뼈다귀 해장국 집으로 갔습니다.

“동철아, 뭐꼬? 집에서 얘기하면 되지.”

동생이 환하게 웃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는 동생의 모습이 언젠가 기억이 가물가물 할 정도였습니다. 동생이 “형아, 형수님. 저 장가갑니다.”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우리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고 단 한 번도 연성을 높이거나 싸움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

났지만 동생도 저도 죄 한 번 짓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동생 나이 올해 45살, 저는 49살. 동생도 저도 불혹을 넘겼는데, 동생은 아직도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인해 한쪽 다리가 불편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셨지만 누구보다 바르고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손꼽히는 만능손이였습니다. 다 부서져 작동도 하지 않는 경운기며 탈곡기도 고치셨고 다 허물어져가는 집 보수 공사까지 척척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늘 불평이 많으셨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날보다 무료로 일을 해드리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오는 아버지의 몸에서는 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품삯으로 받은 쌀이며 고구마, 감자, 사과, 옥수수를 잔뜩 가지고 오셔서 우리 형제에게 먹이며 “아버지 열심히 일해서 우리 동철이, 성철이 대학도 보내주고 장가가는 것도 보고 그랄까다” 머리를 쓰다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학도 보내주고 장가가는 것도 보신다면 아버지는 제가 고1 되던 해 심하게 아프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불러놓고 “성철아, 동철아. 너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절대로 싸우지 말고 착하게 지내 거라. 알았제?”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형제는 아버지의 손재주를 물려받아서 저는 기계공작, 선반, 밀링, 다듬질을 동생은 전기와 토목을 전공하며 각종 자격증을 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저도 동생도 꼬박 꼬박 적금을 넣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았습니다.

동생의 나이 35살, 그해 동생은 선을 보았고 얼마 후면 결혼식 날 짜까지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그해 가을 새벽 출근길에 비가 유난히도 많이 왔습니다. 토목기술자였던 동생은 이른 새벽에 출근을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서방님이 병원에 있대. 우리 서방님 어떡해?”

아내는 울먹이며 말을 했습니다. 동생은 새벽 출근길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던 겁니다. 그날 동생은 10시간의 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입을 동생과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하여, 결국 파혼을 당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어야 했고, 그동안 모은 돈도 병원비로 다 날리고 동생은 입에 대지도 않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늘 술에 절어 있었습니다. 동생의 그런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동철아,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힘내고 다시 시작하자” 말을 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형이 뭔데? 간섭하지 마라. 내 인생이다. 이렇게 살다가 확 죽어떨란다.”

저는 그런 나약한 동생의 뺨을 때렸습니다.

“사내놈이 그래 나약해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우찌 살아갈끼고? 차라리 마 죽어빠라.”

마음에도 없는 말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평생 단 한번도 동생에게 손찌검을 해보지 않았던 저는 그날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셨는지 모릅니다. 새벽녘 집으로 와 동생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자는 동생의 볼을 부여잡고 영영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동철아, 미안하다. 형이 너를 때려서. 우리 동철이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동생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내 동생 동철이가 동그란 눈을 뜨며



“형아, 내가 미안하다. 우리 형아 마음 아프게 해서.” 그날 우리 형제는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동생이 “나 정말 걸을 수 있을까? 안되겠지?” 물었습니다. “우리 동철이가 누구 동생인데, 열심히 재활하면 반드시 걸을 수 있을 거다. 동철아, 기적을 바라지 말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야...”

그 후로 동생은 이를 악물고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수

술과 재활 덕에 조금씩 차도가 있었고 한쪽 다리를 절지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간의 재활을 통해 얻은 기적이었습니다.

“형아, 나 장사라도 해볼까? 나 군대시절 운전병이었으니 운전 하나는 자신 있거든.” 동생은 몸도 마음도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집 앞에 평소 못 보던 트럭 한 대가 있었습니다. 운전석은 장애인도 운전할 수 있게 개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중고 트럭이지만 동생의 꿈과 희망이 담긴 트럭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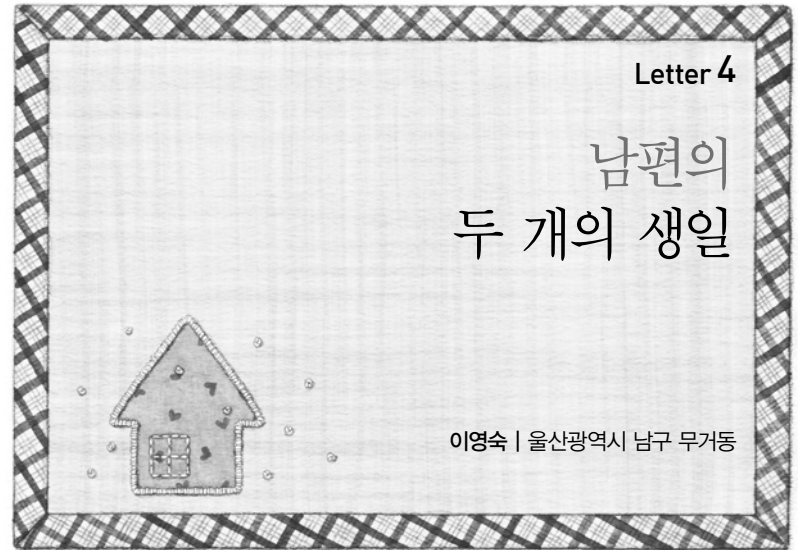
오늘도 제 동생 동철이는 새벽 3시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고등어, 갈치, 삼치, 백조기를 싣고 부산 구석구석을 다닙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서툴러 매일같이 남겨오는 생선 때문에 저희 집은 지겹도록 생선반찬만 먹었습니다. 이제는 장사 수단이 좋은지 상자떼기로 판매를 하며 단골 전화번호가 빼곡한 수첩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떤 전화가 오면 저희 앞에서 받지 않고 나가서 받는 겁니다. 귀를 쫑긋 세워 동생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참으로 상냥하게 전화를 받더군요. 아마도 연애를 하는 거 같았습니다.

그런 동생에게 정말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45살의 내 동생이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동생의 모습을 눈여겨본 자갈치시장 아지매의 소개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제수씨 될 분도 동생과 똑같은 장애를 가졌습니다. 동생보다 두 살 아래로 마음씨 곱고 착한 아가씨입니다. 오늘 11월 1일, 제 동생 동철이가 결혼합니다.

“동철아, 결혼 정말 축하한다. 제수씨 축하합니다. 정말 잘살아라. 신혼여행 갔다 오면 형하고 멋지게 건배하며 술 한잔 하자꾸나.”

이렇게 기쁜데 저도 아내도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건 왜일까요.



남편은 신일곱(57) 살인 2012년 5월 10일 이후로 생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경동맥이 터져 심장이 멈춰버린 30분, 그 이후로 우린 눈으로 가슴으로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는 식물인간이죠. 하지만 우리가 죽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남편이자 아빠인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칫솔질도 해주고 목욕도 시키고, 때로는 여유롭게 커피향도 음미하면서 보낸 지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모두 직장, 학교를 다니니 주중에는 시누이가 고맙게도 병간호를 해주려 갑니다.

물론, 침부터 이렇게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려움을 모르고 늘 그렇게 편하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모두 공무원이고 두 아이들도 애먹이지 않고 자라면서 평탄한 길을 걸어왔습니

다. 남편이 경동맥이 터지기 전엔 당연히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멈춘 30분을 심폐소생술로 살렸지만 병원에서는 5월 10일 그날을 넘길 수 없다 하였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당한 일이라 저는 여러 차례 실신을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미 심장이 멈추었기 때문에 뇌손상이 심각하다...”

그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살려만 달라고, 바보라도 좋으니 내가 받은 사랑을 갚을 시간을 달라고,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내고 꿈에도 생각 못한 일반병실로 보내줬습니다. 물론 의식이 없는 상태로요.

그러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남편은 발가락을 움직였고, 눈을 떠 주었습니다. 보름만 살아 달라고, 한 달만 더, 3개월만, 6개월만 살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내 남편은 버텨주었습니다.

눈물로 살얼음판 같은 시간을 보낸 어느 날, 너무 힘들어 딸과 아들 모두가 병실에 있을 때 “우리 같이 죽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러더군요. ‘그게 자식에게 할 말이냐고? 죽고 싶으면 엄마 혼자 죽으라고, 아빠는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텃줄을 끊고 태어난 생일과 다시 태어난 생일 두 개를 갖고 살기를 3년 6개월. 그런 남편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가 보고 싶을 때 가면 볼 수 있도록 맨날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남들은 내 편 들어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사람 병간호한다고 참 힘들제?”라고요. 아닙니다. 남편은 누워서 우리 가족들을 알뜰히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딸 아주 좋은 신랑 만나 결혼하게 해주었고, 우리 아들 씩씩하게 군대 갔다 와서 석사 과정 공부하

고 있도록 해주었고, 그렇게 애태우던 나를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줬습니다.

생일을 두 개 갖게 되더니 없던 능력이 생겼나 봅니다. 누워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가족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 나이 60세인데, 간호사가 부르는 호칭은 ‘어르신, 할아버지’입니다. 너무 듣기 싫지만 참지요. 참다가 한마디 할 때도 있습니다. “아직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저씨 또는 소장님이라 불러주세요.” 농담처럼 말하고 웃지만 속으론 읍니다. 어떤 보호자는 저에게 “아버지 보러 왔냐?”고 물어봅니다. 전 그냥 웃지요.

남편을 보러 가는 주말과 공휴일이면 삶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두 개의 생일 중 부모님이 태어나게 해준 생일이 10월 12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늦게나마 남편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두 개의 생일 때마다 병원에 떡을 돌리니 병원식구들이 묻습니다.

“생일 떡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거 같은데 또 생일이예요?”

“예, 오늘은 정말 생일이고, 5월은 두 번째 생일입니다.”

남편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툭툭 털고 병상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능력을 가진 남편이니 그럴 수 있겠지요? 늦게나마 우리 남편 생일 축하해 주시고 이 말도 꼭 전해주세요.

“자기야 사랑해. 그리고 잘 버텨줘서 고마워.”



지금까지 라디오에 사연을 한번도 보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애청자도 아니고요. 그저 운전할 때만 라디오를 들곤 했는데 오늘은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2012년 7월 23일 새벽 2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한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놀라지 말고 들으라고, 엄마가 어찌면 오늘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 의사선생님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했다는 전화였습니다. 잠결에 받아서 처음엔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한참 동안 울고, 가까이에 살고 있는 형, 누나에게 연락해서 다 같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가 놀랐던 이유는 그해 6월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버지 일일 거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옆에서 병간호를 하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기 때문입니다. 평소 너무나도 건강하셨던 어머니의 뇌출혈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병원에 도착해서 들은 어머니의 병명은 뇌출혈 중에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지주막하 출혈. 어머니는 대략 8시간의 수술을 받은 후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4남매가 부모님 병간호를 하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남매 중 첫째인 큰누나가 부모님 병간호를 위해 휴직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병간호한 누나 덕분에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됐고 입원 21일 만에 무사히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암 말기였던 아버지도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별 이상이 잘 지내고 계셨지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러, 모든 걸 잊고 살던 지난 10월 3일.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오후 3시경 큰 매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잘 연락을 하지 않던 매형이었기 때문에 전 누나가 매형 전화기로 전화를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매형이 “치남 어디야? 집이야?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누나가 어머니랑 같은 뇌출혈로 병원에 와 있어. 치남도 병원으로 좀 와야 할 것 같아” 하는 거였습니다.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현듯 2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급히 형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상황을 말하고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누나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명은 어머니와 같은 지주막하 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서는 뇌압과 혈압이 너무 높아서 뇌압을 낮추는 약을 투여 중이라고 했고, 그래도 저희는 어머니가 수술 후 잘 지내고 계셨기 때문에 누나도 수술만 받으면 괜찮아질 거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진 누나. 가족들은 누나를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병원 측에 계속 의뢰했지만, 병원에선 이송 중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송은 불가하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누나의 혈압만 정상으로 돌아오면 수술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럼 나올 수 있겠지’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매형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가 오늘을 넘기기 힘들 수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또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 댁으로 가 부모님이 놀라시지 않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다 같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중환자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다음날 담당의사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의사 소견으로, 처음 1차 출혈 후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 오기 전 방문했던 병원에서 2차 출혈이 있었던 걸로 생각되고 병원에 도착할 땐 눈의 동공이 풀리고 의식이 없어 이미 뇌사상태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혹시 심장이 멎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할지 여부를 알려 달라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환자의 갈비뼈와 폐 손상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뇌사상태 환자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신체만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희는 한참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몇 시간 후, 심폐소생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병원에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90% 이상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관적인 말만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실오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년 전 어머니를 수술하셨던 의사선생님을 찾았습니다. 현재 누나의 상태가 담긴 영상과 의무기록지를 가지고요. 하지만 어머니 수술을 하셨던 의사선생님도 지금으로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수술하셨던 선생님과 면담 후 우리 가족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마음속으로 ‘그래도 우리 누나한테 기적이란 게 생기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면회를 갔지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제가

누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듣는지 못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좋은 얘길 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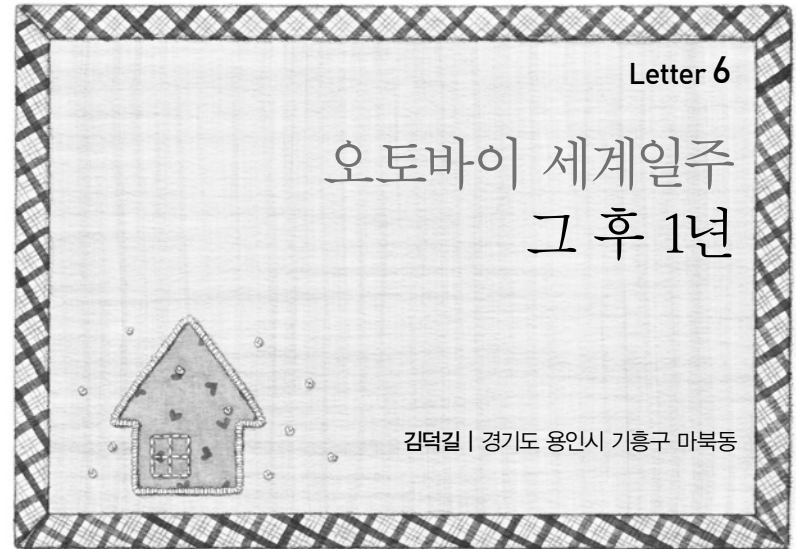
그렇게 입원 후 6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10월 9일 새벽. 큰누나는 42살이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로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휴직을 하고, 2년 동안 극진히 어머니를 돌봐드려서 어머니는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지만 정작 누나 본인은 어머니와 같은 병으로 너무나도 갑작스레 세상을 등지게 됐습니다.

처음 입원할 당시만 해도 당일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까 봐 누나가 6일이라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누나의 모든 삶을 마무리 짓는 사망신고를 매형과 함께 가서 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누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부르면 대답할 것 같고, 전화하면 받을 것 같고, 부모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호야~”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며 나올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먼저 떠났는지 그저 야속하기만 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고 평생 한숨으로 지내셔야 할 부모님과 앞으로 혼자가 돼 쓸쓸히 살아가야 할 매형과 누나를 그리워하며 힘들게 살아갈 형제들 모두가 걱정되기만 합니다.

평소 라디오를 즐겨 듣던 누나를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양희은 선생님과 서경석 형님이 사랑하는 큰누나에게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전해주시겠어요? 누나가 들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가족 모두가 큰누나를 많이 사랑했었다고,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부디 좋은 곳에서 아픔 없이 행복하게 편히 살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일주를 떠났다 돌아온 지 벌써 1년이 돼 갑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 길이라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세계일주를 떠나기 전에는 ‘뺑뺑이 장사가 내겐 천직이려나’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이조차 다시 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이미 다른 장사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해서 먹고 살지? 아직 더 벌어야 하는데...’ 오토바이로 세계일주를 떠날 때만 해도 일단 떠나기만 하면 내 미래가 엄청나게 바뀔 거란 착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변함없는, 치열한 경쟁의 장이더군요.

나는 돌아와서 딱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잘 아는 길이어야 해! 내게 낯선 길은 오토바이로 세계일주한 길로 충분해!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빵튀기 장사를 다시 시작하기로요. 그 길이 최선이고, 그것이 삶의 무게 앞에서 나를 당당히 만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예전에 거래했던 도매점엘 찾아가서 시장 상황부터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알뜰시장에 다시 들어가기로 했죠. 마음먹은 지 3일 만에 장사할 트럭을 사고, '아파트 알뜰시장' 장을 계약하고, 물건을 사고, 장사할 텐트와 장비도 주문했습니다. 1년 동안 쉬었던 장사를 다시 시작하는 제 마음은 비장하기까지 했죠.

단골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대로 간파하지도 못한 채 나는 무작정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첫날 매출은 43만 원! 대박은 아니었지만 나를 성공한 장사였습니다.

나는 장사 좌우명을 이렇게 썼습니다.

“퍼주고 망하는 장사는 없다.”

그래서 노점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접시 모양의 빵튀기를 한 장씩 나눠주었습니다. 명함이나 전단지 는 받으려고 하지 않지만, 빵튀기는 달랐죠. 일단 받아들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먹습니다. 빵튀기의 아삭아삭함과 즉석에서 튀기는 현장감, 그리고 친절한 미소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들은 시장을 돌면서 빵튀기를 먹고 빵튀기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찾아와 빵튀기를 사갑니다.

“와! 사장님 맛있어요. 다른 집 빵튀기도 많이 먹어보았지만 사장님 빵튀기만큼 맛있는 빵튀기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그럼 이것도 드셔 보세요. 새우 대신 감자를 넣고 바삭하게 튀긴 건데 비타민 C가 사과보다 감자에 30%나 더 들어있어요.”

손님들은 감자로 만든 빵튀기를 시식하곤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그러곤 대개 흡족하게 웃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장장 12시간 동안 장사를 합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이 와도 따로 만나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장사하는 곳으로 오라고 하면, 속 깊은 친구들은 바로 오죠. 그럼 우리는 같이 장사를 하면서 삶의 애환을 다독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노점을 시작한지 일 년이 다 돼 가네요.

얼마 전, 이 아름다운 가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지리산 무박으로 이틀 정도 산행할 건데 당신도 같이 갑시다” 했더니, 아내도 좋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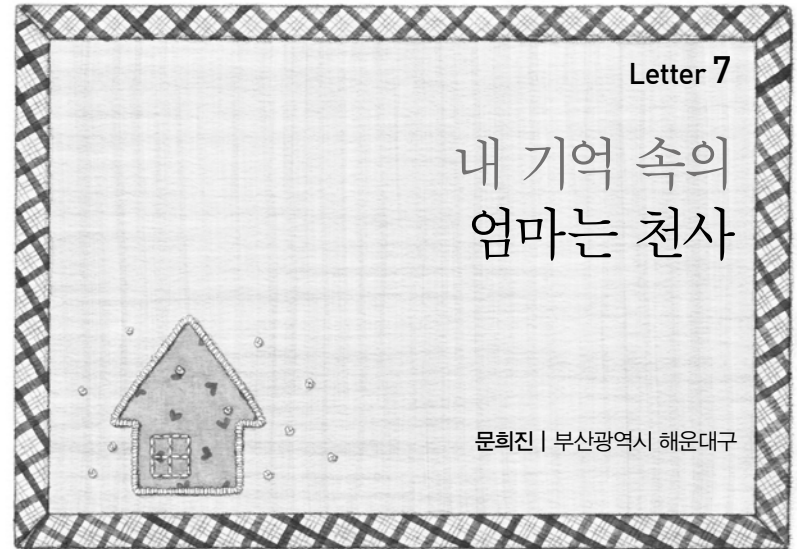
우린 밤새 달려, 새벽 5시부터 지리산 성삼재에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둠은 아직 짙게 깔려 있고, 별은 노고단 쪽에서 아스라이 빛났습니다. 작은 플래시 불빛이 깊은 어둠을 가르니 희미하게 등산로가 보였습니다. 노고단을 거쳐 임걸령이란 지리산 고개에 가니, 그제야 해가 뜹니다. 우리는 그 해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해를 두 손으로 받아보기도 하고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해를 담아보기도 하고 손가락 위에 해를 올려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해가 빠졌는지, 자꾸만 눈부시게 빛을 더하네요.

반야봉에서 내려다 본 운무는 힘들게 올라온 심신을 위로했습니다. 산은 이미 가을을 넘어 겨울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컵라면과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충 때우고 우리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단풍은 뱀사골에 가서야 겨우 그 처절한 피돌기를 보여줍니다. 설악산 천불동 계곡과 흡사한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도 단풍은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장장 4시간에 걸친 하산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가을을 조금이라도 가슴에 담고자 산을 오르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들 얼굴에 번지는 해맑은 미소와 땀방울이 참 아름답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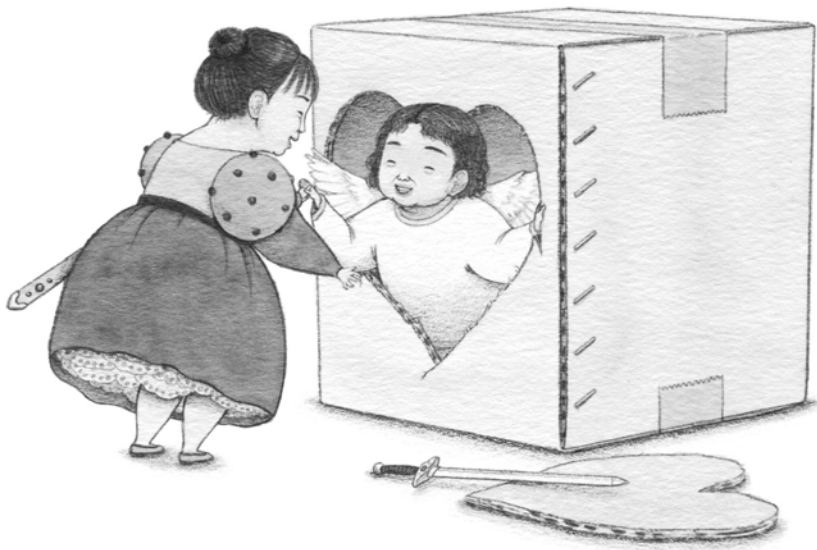
돌아오는 길, 산채정식 뷔페에서 우리는 산나물 만찬을 즐겼습니다. ‘가을’은 즐기는 자의 것이며 ‘삶’은 살아가는 무게 앞에서 당당한 사람들이 주인이 된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열심히 일한 여러분, 떠나십시오! 한번 간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주무실 때까지 라디오를 친구 삼아 듣고 계신 우리 엄마. 내 기억 속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백의의 천사이시다.

엄마는 온종일 웃음으로 우리 가족을 맞이하였고, 아침이면 어김없이 내 방에 들러 “딸~ 딸~ 사랑하는 엄마 딸~ 아침 7시다. 빨리 일어나렴” 하고 깨우셨다. 그럼 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이불 속에서 “엄마, 엄마... 나 5분만, 10분만...” 누워서 어리광을 부렸고, 그럼 엄마는 내 엉덩이를 톡톡톡해 주면서 “이쁜 딸, 엄마 딸, 우리 공주, 빨리 일어나야지”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상냥하고 고상한 말투의 장미희 아줌마처럼, 지금 안 일어나면 지각이라고 더 늦기 전에 밥 먹어야 한다고 챙겨주셨다.



아침잠이 유난히 많았기에 마지못해 일어나면 온 집안에 엄마표 카레 향기와 또 아빠가 유난히 좋아하시던 매콤한 엄마표 김치찌개 냄새가 가득했는데... 그 냄새가 집안 곳곳에 퍼져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면 우리 집 아침 메뉴를 친구들이 다 알 정도였다.

그러던 우리 엄마가 이제 아침에 날 깨우는 일, 학교 지각한다며 밥 챙겨주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내 기억 속의 웃음이 가득했던 엄마는 어디론가 가고 없고, 지금 내 눈 앞엔 누군가의 도움 없인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엄마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날 보고 웃어주지도 않고, 더 이상 날 '공주'라고 하지도 않으신다. 늘 엄마의 사랑을 받기만 했던 나는 이런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야 말았다. 자다가도 하루에 몇 번이나 다리에 쥐가 나서 아파하는 엄마. 그럼 난 악을 쓰며 말했다. "잠 좀 자자고, 제발 소원이라고..." 이 말에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럼 난 또, 더 악을 쓰

며 말했다. "그만 깨우라고, 제발 잠 좀 편하게 자 보자고... 도대체 몇 번을 깨우냐..."고.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나는 나쁜 딸이다.

"나도 친구 집에 놀러가고 싶고, 친구들이랑 밤새 툽도 하고 싶고, 애들이랑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도 실컷 먹고 싶고, 밤늦게까지 놀고 싶다고..." 이렇게 아픈 엄마에게 모진 말로 엄마 마음을 더 아프게 해버리고 말았다. 엄마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며 울어버린 날 보며, 엄마는 한참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고, 예전처럼 엄마가 날 깨워주셨음 좋겠다. 나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내가 이기적이란 걸. 그래도 엄마 밥이 그림다.

야간 일을 하시는 아빠는 내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신다. 내가 없으면 아빠가 엄마를 돌봐드려야 하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다. 내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힘들고, 난 엄마 아빠의 꿈이고, 엄마 아빠의 하나뿐인 딸이자 웃음이란 걸, 모두 다 잘 알고 있다.

고1이 되면서부터 난 꿈이 생겼다. 나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위해 그리고 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또 돈도 벌어서 엄마가 좋아하는 흥시도 사 드리고 맛있는 고기도 마음껏 드시게 하고 싶다.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들으며 웃으시는 엄마에게 작은 TV라도 사드리고 싶어서 요즘 난 40분이 넘는 학교를 걸어서 간다. '교통비라도 아껴서 돈을 좀 모아보자' 싶어 아끼고 아껴서 벌써 16만 원이나 모았다. 매점도 가고 싶고, 빅뱅 앨범도 사고 싶지만 엄마를 위해 나는 돈을 모으고 있다. 이런 내 마음도 모른 채, 아빠는 맨날 화만 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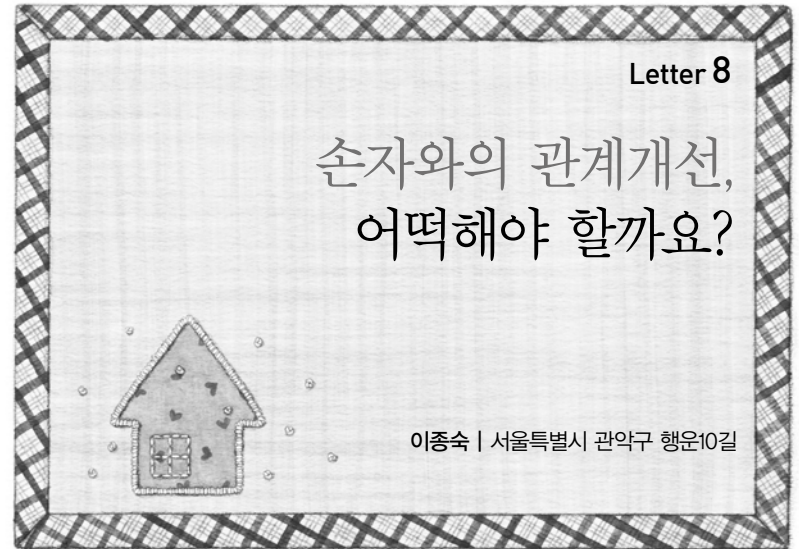
다. ‘학교 마치고 뭘 하기에 이제 오냐고, 왜 바로 오지 않느냐고...’ 그럼 난 아무 말도 못한 채 “아빠, 주무세요” 하고 엄마의 휠체어를 밀어서 내 방으로 모시고 온다.

지금 난 엄마가 자주 들으시는 MBC 라디오를 통해 엄마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날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글을 쓰고 있다. 라디오를 들으며 웃으시는 엄마를 보니, 나도 행복하다.

“엄마, 저 진이에요. 부끄러워서 한번도 말한 적 없는데요. 매일 엄마 마음 아프게 하고 나쁜 말만 해서 죄송해요. 저도 이제 울지 않고 웃어볼게요. 엄마가 제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아빠께 효도할게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예전 처럼 웃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빠. 야간 일 하느라 힘드시죠? 못한 딸이라 투정만 부리고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빨리 어른 되어서 돈 많이 벌면 두 분께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드리고 효도할게요. 매일 우리 가족을 위해 잠도 못 주무시고, 가끔 가위에 눌려 힘들어 하시는 우리 아빠. 아빠 마음, 저도 잘 알아요. 앞으로 더 아빠한테 잘하는 딸이 될게요. 사랑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가족 서로 위하면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요.”

이런 제 마음을 엄마 아빠한테 전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양희은 아줌마가 진행하시는 여성시대에 제 마음을 전해봅니다. 조금이라도 이 마음이 부모님께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늘 행복한 방송, 웃음 가득한 방송, 감사합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엄마가 제 글을 듣고 웃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는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저는 오늘 손자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여러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여성시대 앞으로 몇 번이나 편지를 보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꾸 되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혹시 주소를 잘못 알고 보냈나 싶어 손자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여성시대 주소를 인터넷으로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녀석 한숨을 몰아쉬며 “할머니, 그것도 몰라?” 통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녀석은 아마도 이번 기회에 그동안 할머니인 나한테 받은 수모를 다 털어 내놓을 심사인지, 기세가 아주 등등했습니다.

어쨌든 녀석이 여성시대 주소를 다시 알아봐준 덕분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라는 자식들의 말에도 ‘이 나

이에 굳이 뭘...’ 하며 배우지 않았는데 손자 녀석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보니 ‘그래, 이제라도 내가 한번 배워보마’ 속으로 다짐을 하게 되네요.

손자 녀석의 행동은 늘 제 눈에 거슬립니다. 나는 갱년기이고 손자는 사춘기이니 둘의 신경전이 어떨지 짐작이 가시나요? 오늘도 벌써 몇 차례나 눈에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데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 ‘그래, 참자. 내가 참자’ 속으로 몇 번이나 외치며 가슴을 달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한계를 넘고 말았습니다. 이 아까운 시간을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을 보며 낄낄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미웠습니다. 녀석도 눈치껏 하면 미움을 덜 받을 텐데 그것을 알면서 그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아예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갈 태세로 마냥 행복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녀석에게 한마디 했더니 조금 전까지의 행복한 모습은 간 곳이 없고 할머니인 나한테 불같이 화를 냅니다.

물론 저의 훈육방법이 100% 다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아이들, 제가 아이 낳아 키울 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옛 어른들이 농사 중 제일 어려운 게 자식농사라고 하시던 말씀이 새삼 손자 녀석을 보면서 절실히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이 모르는 그들만의 세계가 있겠지요. 그런 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요즘 아이들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아요. 매사 이렇게 안 맞으니 제가 고민을 할 수밖에요. 제발 누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자 녀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낼 수 있는 지를요. 그러면 저는 적극 노력해서 좋은 할머니로 거

듭나고 싶습니다. 이 다음에 손자 녀석 기억 속에 좋은 할머니로 남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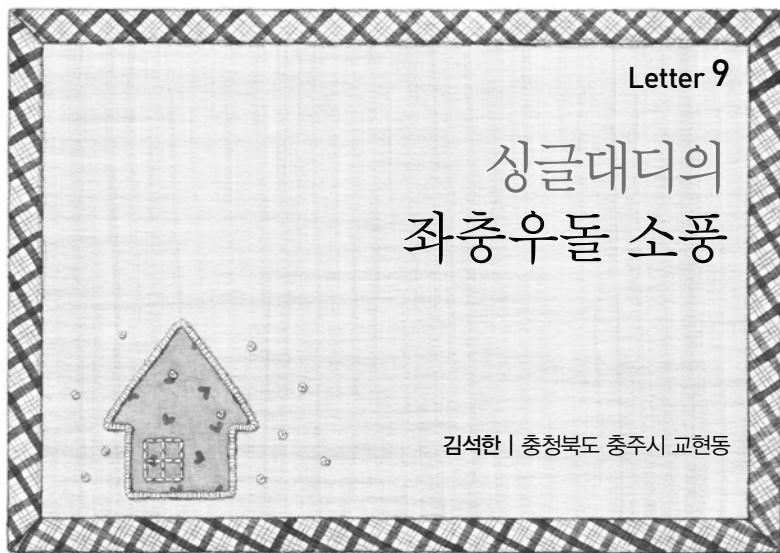
녀석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는 저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충분히 대화를 나누며 아이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해야지, 요즘 우리 손자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든 다 들어줘야지, 마음 먹고 있다가도 막상 녀석과 몇 마디 말을 하다보면 그만 언성이 높아지고 열이 확 오릅니다.

물론 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도 빨리 변하고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빠른 세상을 제가 옛날에 제 아이 낳아 키울 때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지요. 요즘 아이들에게 예전처럼 살라고 하면 그것도 억지겠지요.

하지만 옛날 것은 다 나쁘고, 요즘 것은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손자 녀석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소귀에 경 읽기’지요. 그러다보니 저 혼자 지껄이는 일이 많아, 오늘도 몇 번이나 요즘 말로 머리의 뚜껑이 열릴 뻔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옆에서 “할머니, 요즘 편지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방송국에서 읽어주지도 않아. 빨리 컴퓨터 배워. 촌스럽게 편지가 뭐야” 또 제 속을 긁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맞는 소리 하는 손자 녀석을 무척대고 미워할 수만은 없게 만드네요. 우리 손자와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에고, 힘이 듭니다.



저는 6살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마흔 살의 싱글대디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7시간의 기억인데, 이게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지, 운이 나빴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토요일에 '아빠와 함께하는 숲 나들이'란 프로그램의 준비물로 도시락이 공지되었더군요. 직접 도시락을 싸야 하나, 아니면 사서 가야 하나 금요일 저녁까지도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빠의 정성이 들어간 김밥이 나올 듯하여 급하게 장을 봐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지난 봄 소풍 때 김밥을 말았던 기억을 더듬으며 김밥을 싸는데 걸리는 예상소요시간을 계산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늦게까지 그동안 못 본 방송을 보고, 새벽 6시부터 4분 단위로 5개의 알람을

설정해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저의 귀에는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알람소리에도 불구하고 숙면에 취해 있던 중 방에서 자던 아이가 나와 제 품에 안겼음에도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밖의 환함과 웬지 모를 불안감에 눈을 떠보니 7시. 아~ 늦었습니다.

그러나 김밥을 말아본 기억에 의하면 그래도 일단 가능하다 판단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소 그렇게 깨워도 잘 안 일어나던 아이도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준비된 재료를 몇 개 주워 먹다가 화장실에 가고, 또 말아놓은 김밥 몇 개 떨어주었더니 그거 먹고 또 응가를 한다고 화장실에 가더군요.

예상 출발 시간보다도 30분 정도 늦었지만 그래도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행사가 이루어지는 휴양림으로요. 그런데 차에 기름이 왕복하기엔 좀 모자라다 싶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니 휴양림 주변에 주유소가 없는 것 같아 도심을 빠져나가기 전에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주유소에서 휴대폰을 차량 지붕 위에 올려두었지요. 그리고 주유를 마치고 휴대폰을 잊은 채 출발했습니다.

잠시 후, 뭔가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백미러로 보니 낫익은 물체가 바닥에 뒹구는 모습이 보이며 제 손에 휴대폰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슈퍼컴퓨터처럼 순식간에 저의 머릿속에서 잔여할부기간, 분실 신고 후 보험 처리, 새로 구입하는 과정의 번거로움, 새로운 휴대폰에 적응하기 등등이 스쳐지나갔습니다.

일단은 생사를 확인해 보기로 하고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시킨 후 아이에게 휴대폰의 생사 확인을 위해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사인 볼트가 된 것처럼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 뛰었습니다. 순식간에 떨어진 장소에 다다르니 휴대폰 케이

스가 너털너털하게 차량들 사이로 나부끼는 것이 보이더군요. 조금 더 가보니 휴대폰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이지만 달리는 차들로 인해 바로 구조는 못하고 차량들이 지나가길 지켜보는데, 수십 대의 차량들이 거리낌 없이 밟고 지나갔습니다. 잠시 차량의 흐름이 끊기는 사이 다가가보니 아~ 처참합니다.

후면커버는 그나마 괜찮아 보였는데, 본체는 액정이 깨지고 놀리고 배터리는 흔적조차 안 보이고, 그래도 일단 본체와 후면커버를 구조하여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에 있던 예비배터리를 휴대폰에 끼우고 후면커버를 달고 조심스레 생명을 불어넣어 봅니다. 아~ 휴대폰이 살아났습니다.

휴드폰의 생사를 확인 후 행사장으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휴양림 주차장에 주차 후 고생하여 쓴 도시락들과 돛자리, 카메라를 챙겨 이동하는데 여기서 또 뭔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입구부터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처음 보는 유치원의 안내판만 준비했습니다. 그 넓은 휴양림에서 찾아다니기는 힘든 것 같아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제 아이와 같은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나 물어봤지만 다들 못 봤답니다. 숨만 쉬고 있는 휴대폰을 깨워 어린이집 공지글을 열어보며 또 한 번의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휴양림이 2곳인데 전 50%의 확률로 다른 휴양림 안에 들어와 있던 겁니다. 아이는 친구들이 있는 휴양림으로 가자고 했으나,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곳이라 이동하면 도착하자마자 행사는 끝날 것으로 보여 아이를 설득했습니다.

“여기도 재밌다. 볼 거 많다. 저 위에도 올라가보자...”

이내 아이도 동조하여 전에 왔다가 무섭다고 포기한 스카이다워도

올라가고 나름 재밌게 보내고, 다른 유치원 아이들이 돛자리 깔고 도시락을 먹는 장소 부근에 저희도 돛자리 깔고 앉아 힘겹게 쓴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이내 다른 유치원 아이들 틈 안으로 들어가 잘 놀더군요. 제 아이지만 조금 예뻐서 그런가, 제 아이 주변으로 여자아이들이 모이고 “너 몇 살이니?” “어디 유치원이니?” 질문공세에 아이는 입을 다문 채 노니 그 여자아이들이 제게와 “재 몇 살이에요?” “음, 6살인데”라고 하자 나이가 같다며 계속 따라다니며 놀자고 졸랐습니다.

그렇게 잘못 온 휴양림이지만 신나고 재미나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도 “아빠와 둘이서 노니 재밌다”는 형식적인 말을 하더군요. 뭐 그렇게 놀 거 놓고, 먹을 거 먹고 귀가하기 위해 차에 타서 이동하는 순간 뒷자리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한마디.

“아빠! 다시는 그러지마!”

이건 또 무슨 소린지. 그래서 “왜?”라며 되물으니 “소풍날에 늦게 일어나서 서두르고 잘못 찾아가지 말란 말이야”라네요. 헉! 저의 늦잠도 있었지만 아들놈의 응가 두 번도 만만치 않게 시간을 잡아먹었음에도 말이죠.

제 휴대폰은 모진 차량의 밟힘 속에서도 현재 액정이 깨지긴 했지만 무사히 작동이 되네요. 또 이번 숲 나들이는 쉽게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추억이 되었네요. 이거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해야 할까요? 운수 없는 날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고향은 복숭아 최대 산지, 국제소싸움대회, 감말랭이, 씨 없는 홍시, 청도 반시로 유명한 경북 청도입니다. 그곳에서 화양읍에 있는 화양국민학교가 제 모교구요. 옛날 국민학교 가는 길에 참기름집이 있었지요.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분주하게 참깨를 볶고 기름을 짤 때 나는 고소한 냄새가 좋아서 가만히 멈춰 서서 “흐음...”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음미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시던 고소한 냄새의 김밥을 생각하며 말이죠.

때는 1978년, 봄 소풍 즈음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식구 중에 한 명이라도 소풍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소고깃국에 김밥으로 가족잔치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김밥을 싸실 때마다 막내인 전 기대에 부푼 눈으로 군침을 삼키며 김밥이 어서 말아지길 기다렸

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시는 대로 넘죽넘죽 받아먹곤 했지요.

어머니의 김밥엔 아주 특별한 게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묵과 단무지 정도였는데 딱 하나, 특별한 게 일명 ‘수루메(말린 오징어)’라고 가느다란 오징어 진미채를 빨갛고 매콤하게 버무려서 양념으로 사용한 거였습니다. 매콤하고, 짭짤하고, 쫄깃한 게, 고소하기까지 했죠.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서 배가 볼록 울창이배가 될 때까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시골엔 마트가 없어서 어머니는 소풍 전날 시장에 가서 장을 보셨습니다. 지금도 청도에는 시골 5일장이 서는데 어릴 땐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가면 이것저것 맛난 걸 곧잘 얻어먹었어요. 특히 건어물상에서 수루메를 살 때면 꼭 한 움큼 제 손에 쥐여 주셨죠. 포장할 때까지 그렇게 두어 번을 쥐여 주셨는데 주인아주머니가 눈치를 주셔도 “사도 않고 구경만 하먼서 묵은 사람도 있는데 우린 마이 사지 않나. 쾌안타 마” 하셨던 우리 엄마.

우리 가족은 오남매에 아빠 엄마를 포함해서 모두 일곱 명입니다. 전 수루메 김밥을 좋아해서 매일 먹고 싶었지만 1년 중 먹을 수 있는 날은 소풍 가는 날과 수학여행 가는 날입니다. 그땐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꼭 그날이 아니어도 먹고 싶을 때 먹었음 좋았을 텐데 말이죠.

지금도 제가 엄지손가락을 ‘척’ 세우는 울 엄마, 김금선 여사표 음식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장떡’이에요. 파와 묵은 김치를 잘게 썰어서 밀가루 반죽을 된장과 버무려서 손바닥만 하게 만들어 석쇠에 올립니다. 그걸 어머니는 아궁이의 균불 떼고 남은 숯불 위에 구워서 가마솥 누룽지 색깔처럼 맛깔나게 구워내셨죠. 흔히 ‘불맛’이라 그러죠? 자연숯불, 그 연기 맛이 섞인 맛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엄마표 맛난 음식의 또 하나는 김치국입니다. 김치국은 정말 별거 없었습니다. 멸치로 다시물을 내고, 팽초를 조금 썰어넣고, 고춧가루를 풀고, 김치에,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방울이면 끝. 이렇게 별게 없었는데도 어머니의 담백한 손맛이 잊히질 않네요. 청년이 돼서 객지생활을 할 때도 고향집에 도착하기 전에 먹고 싶은 걸 미리 주문하면 어머니 장떡, 김치찌개, 수루메 김밥 여기에 소고깃국, 돼지 두루치기까지 잔뜩 해주셨답니다.

절 포함해서 자식들은 모두 객지로 나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도 두 분은 청도에서 사과, 복숭아, 논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1995년, 어머니 생신 이틀 전에 아버지가 폐암으로 황망히 가시면서 어머니 외딴 집에서 홀로 지내시네요. 아버지가 떠나시고 이후 5년 정도는 가끔 저녁에 부스럭 부스럭 문 흔들리는 소리만 나도 아버지가 오신 줄 알고 일어나셨답니다.

농사는 동네 선배한테 임대를 줬고,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다는 자식들 채근에 한동안 자식들 집에 돌아가며 지내시던 때가 있었는데요. 어머니 맘도 편치 않고, 농사도 걱정되고, 고양이 사료도 쥐야한다면서 곧 고향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가을에 고향집에 갔더니 유리문에 단풍잎이 하트 모양으로 예쁘게 붙어 있더라고요. 누가 그랬을까 궁금해 하는 제게 어머니는 “누가 하긴 내가 했지. 예쁘제? 안 예쁘나?” 소녀처럼 수줍게, 밝게 웃으셨습니다. 그러곤 “별건 아닌데, 한번도 말한 적은 없지만, 내 너저덜한테 섭섭한 게 있다. 왜 내한테 꽃다발 선물하는 자식이 우에 한 명도 없노? 나도 받아보고 싶은데...”

“어무니, 다음에 올 때 꽃다발 꼭 사올게요.”

“아이고, 아이다 아이다~,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비싼 거



괜히 돈 들किन데, 그라지 마라.”

그리고 보니 그동안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꽃다발을 꼭 사가겠다고 약속도 뭐가 그리 바빴는지 까맣게 또, 잊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8년 후, 어머니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위암 말기입니다. 수술해도 치료 확률은 15% 미만입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고통스럽게 암 투병을 하다 돌아가신 걸 어머니가 봐오셨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술을 했지만, 어머니는 편히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남매 합의로 담당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약한 위염이니 걱정 마시라’ 말해 달라고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 위염인 줄 알고 안도하시더군요. 그때부터 혼자 계시면 안 됐기 때문에 어머니를 겨우 설득해서 형님네 집으로 일단 모셨습니다. 그러다 다시 통증이 심해지면 병원으로 모시는 걸로 하구요.

하루는 어머니와 단 둘이 방에 누워 얘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여쭙니, 어머니 “나는 너자들 어릴 때, 가을 추수 끝내고, 저녁도 배부르게 먹고, 일곱 식구 평상에 누버가 별 쳐다보면서 옥수수 삶은 거 묵을 때, 그때가 쫄 행복했던 거 같다. 너그들도 너무 욕심내며 살 거 없데이. 식구들 건강하이 웃고 살마 그기 제일인 기라.”

그해 겨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형수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깨워도 안 일어나신다구요. 119대원들이 달려오고 응급조치를 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졌을 땐 이미 사망하셨다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례식 날, 어머니 영전에 국화꽃을 놓을 때 “너그는 누구하나 내한테 꽃다발 하나 사주는 아들이 엄노?” 하시던 생전 어머니 말씀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안개꽃 가득 채운 장미꽃을 사드렸어야 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고, 이젠 그럴 기회도 영영 없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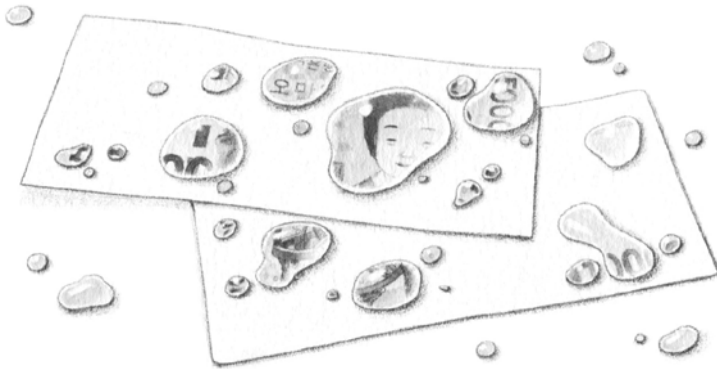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어머니 손맛이 그리워서 가끔 어머니가 하시던 방식으로 김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때 이웃들의 반응이 좋아서, 지금은 고향집과 가까운 대구에서 아내와 함께 어머니의 수루메 김밥 메뉴 하나로 김밥집을 하고 있답니다. 눈에 피지 않는 작은 구멍가게지만 아름답름 입소문을 타고, 지금은 단골들도 꽤 많네요.

어느덧 내년이면 제 나이가 쉰입니다. 어릴 적, 개구쟁이 시절이 엇그제 같이 생생한데 쏠살같이 가는 세월이 아쉽고, 아직도 예쁜 꽃만 보면 어머니가 그리워 가슴이 먹먹합니다. 조그만 들꽃 하나에도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도 주위를 둘러보면 꽃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항상 제 곁에 계십니다.



5년 전 사업 실패 후,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할 무렵 지인이 재활용품 수거하는 일을 해보라 권유를 하더군요. 버려지는 종이와 옷, 신발, 고철 등을 모으는 일이지요. 그 당시 직원이 한 명뿐인 조그만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근 후와 휴일에 1톤 트럭 끌고 골목길을 누비며 팔 수 있는 재활용품을 차에 실어 두었다가 그 다음날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아는 업체에 팔고 출근하는 그런 생활을 거의 1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 당시엔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파는 일이 돈이 꽤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버는 돈보다 일과 후 하는 벌이가 더 나아 여러 차례 고민을 하다가 아예 재활용품 수거하는 일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



시 40대 중반의 나이였기에 앞으로 회사생활을 얼마나 더하랴 싶기도 했고, 재활용품 수거 일은 정년도 없이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격적으로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땀 흘린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이 일이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렇게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너무 힘이 드네요. 재활용품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폐지를 1톤 차에 차곡차곡 쌓아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높이만큼 작업을 하면 750킬로그램 정도가 됩니다. 요즘 시세가 1킬로그램에 95원으로 750킬로그램이면 7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습니다. 여기에 기름 값과 통행료 등을 제하면 하루 5만 원 벌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밥 사먹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랍니다.

파지만 그렇다면 다른 것이 있으니 위안이 되겠지만 고철류는 이미 킬로그램 당 200원대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장판, 피브이시 종류는 거래처에 팔러 가면 난색을 표하기 일쑤고 겨우 사주는 곳이 있다고 해도 킬로그램 당 100원 미만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에 비해 거래가 안 되는 품목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선풍기 같은 가전제품은 아무 문제없이 쉽게 거

래가 되었습니다. 선풍기를 분해하여 부품별로 구분하면 재활용품으로 거둬나 땅에 묻는 폐기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 환경도 살리고 돈도 벌 수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재활용을 처리하고자 하는 곳에서 전화가 와도 걱정입니다. 옛날에는 “감사합니다” 하며 달려갔지만 지금은 고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모아놓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어느 정도 가격을 쳐드리고 가져와야 하는 데 가져와봐야 제 손에 남는 것도 없이 힘만 드니 망설일 수밖에요. 요 몇 년 동안, 어르신들이 모은 파지를 경로당에 모아 놓으면 제가 가서 얼마를 쳐드리고 수거를 해오곤 했습니다. 제 차 가득 폐지를 실으면 그분들께 한 5만 원 정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싣고 파는 곳에 가서 팔아봐야 5만 원에서 몇 천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름 값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힘들여 모아놓은 폐지를 헐값에 구입할 수도 없고, 제가 남는 게 없다고 가져 오지 않을 수도 없어 계속 그렇게 가격을 쳐드리고 있습니다. 남는 것이 없어도 어르신들 위해 해오던 일이니 당분간은 하겠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일을 앞으로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주변에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으니 그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심각한 얼굴을 하시더군요.

저 혼자 마음속으로 묻고 또 물으며 내린 결론은 지금 비록 힘들어도 계속해보자는 쪽입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다시 한 번 가져보렵니다. 어서 경기가 좋아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직한 땀방울의 대가가 주어지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1991년 여름 새벽, 온실에 도둑이 들어 자식보다 아끼며 키운 200여 화분에서 춘란만 쏙 가져가버렸다. 그 당시 시가로 칠천만 원 정도 되는 걸 도둑맞은 것이다. 말 그대로 하늘이 노랬다. 입천장이 짹짹 타들어가고 열흘간 밥을 먹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세월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했던가. 내 가슴속을 지배하던 절망감은 새로운 열정에게 밀려 사라져버렸다. 반만년 위대한 한민족의 유적을 보살피고 유물을 수집하는 일을 시작했다. 때론 아내의 엄중한 경고와 카드 몰수라는 징벌을 받기도 했다. 골동품과 고서가 넘쳐나 옥상에 창고를 짓고 천여 권의 서책을 보관했다. 일제의 파렴치한 역사왜곡과 중국의 간교한 동북공정을 보면서 위대한 우리 역사를 지키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번째 절망이 또 찾아왔다.

“집에 불이 났어요. 빨리 오세요.”

그 순간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내 심장은 무너지고 패닉 상태가 되어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었다.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집의 물골은 말이 아니었다. 폐허, 그 자체였다. 콘크리트 골재만 까맣게 그을려 남아있고 불타버린 가재도구와 깨진 된장단지, 소중한 보물의 잔해인 재만 남아있었다. 몽유병자처럼 젓더미로 뛰어들 때, 소방관들이 내 허리춤을 잡았다.

“안됩니다. 아직 불씨가 남아있고, 유독가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온통 까만 잿물과 검댕이 터져가는 내 심장처럼 범벅이 되어 있다. 황급히 달려온 아내는 그저 영영 울고만 있다.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 통곡하던 나는 젓더미를 뒤적였다. 조상님의 족보도, 소중한 독립신문도, 1900년대 초 언더우드 선교사의 보고서도 모두 다 홀랑 타버렸다. 우리 부부가 31년 동안 야간근무를 해가며 키워 온 전 재산이 한줌 연기로 스러져버렸다. 내 인생 중 45년간 역사기록인 일기장들과 공들여온 보금자리가 증발해버린 것이다.

참 기구한 팔자다. 남들은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일을 나는 무슨 복이 이리도 많아 두 번씩이나 겪으며 쫓딱 망하게 되었다. 내 년이 정년인데 남은 노후는 어찌란 말인가. 하늘빛도 새까맣게 보인다. 눈물진 시야엔 좌절이 몰고 온 안개비만 뿌연다.

풀린 눈빛으로 우두커니 서 있던 나는 꺼져가는 연기 속에서 아주 작은 빨간 생명을 보았다. 꺼지지 않으려고 파닥이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인다. 살아남으려고, 다시 활활 타오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지금의 나! 그리고 파닥이는 저 불꽃! 동병상련의 처지다. 또한 내 삶의 새로운 좌표처럼 느껴졌다. 저 불꽃도 몇 분 전까지만 해



도 온 세상을 다 삼켜버릴 듯 뜨거운 불갈을 휘둘러왔지만 그것은 순간이었다. 이젠 더 태울 것도 더 탈 것도 없어져 버린 이 순간, 그저 제 한 목숨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미물일 뿐이다. 돌이켜보면 나도 지금까지 내 청춘만은 영원할 줄 알고 천방지축 날뛰어댄 것 같다. 내가 맛본 이 불 맛! 그것은 생살을 찢어내는 고통이었다. 두렵고 무서운 절망이었다. 그리고 허망이었다. 그런데 저 불꽃이 살아내려 애쓰는 것처럼 내 인생도 삼모작 삼아 다시 시작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소방관의 발걸에 이리저리 채이면서도 생명을 이어가는 그 불꽃을 보며 나와 아내의 꼭 잡은 손바닥에는 땀방울이 맺혀온다. 서로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인생 삼모작에 도전하려는 오기가 꿈틀댄다. 이심전심 서로의 손을 굳게 감싸 쥐며 새로운 결기를 싹 틔워 낸다.

잠잘 곳조차 없어져버린 우리는 잣터미 위에 비닐을 깔고 이불을 폈다. 내 청춘과 이별을 고해야 하는 마지막 의식처럼 아내와 함께 드러누웠다. 그날 밤 내 청춘을 기약 없는 먼 길로 떠나보냈다.

Letter 13

갑작스런 아들의 군 입대

김정양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평소 웬만한 일이 아니면 근무 중 전화를 안 하는 집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금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내가 말한다. “여... 여보, 내일 시간 꼭 좀 내. 환이가 군 입대를 한데. 방금 녀석이 군인 머리로 깎고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지 방에서 좀 쉬겠다고 들어갔어.”

순간 무언가에 얻어맞은 것처럼 한참을 멍하니 통화 끊긴 전화기만 바라보았다. 올 3월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아들. 며칠 전 5만 원만 달라기에 “넌 놀면서 뭘 돈이 그렇게 필요해?” 야단을 친 이후부터 아빠가 아닌 엄마에게 조금씩 교통비 정도만 받아쓰며, 나의 눈치를 살피던 아들. 그런 자신감 없는 아들이 한심하고 못나 보여 “사지 멀쩡하고 대학까지 뒷바라지해줬으면 이제는 너 스스로 일어서야 할 거 아니냐!

언제까지 빈둥거리며 놀기만 할 거냐! 그럴 거면 군대라도 지원하던가! 에이 못난 녀석!” 아들보다 백배는 더 못난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불과 반년이 지나기도 전에 취업을 못했다고 아들에게 막말을 했다. 새벽 출근길에 아들 방 문틈으로 작은 불빛이 보여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고,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던 아들을 보는 순간 핫김에 휴대폰을 바닥에 내치며 던진 나의 송곳 같은 말이었다. 그런 일이 있는 후로 아들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뿐이었는데, 녀석이 군 입대를 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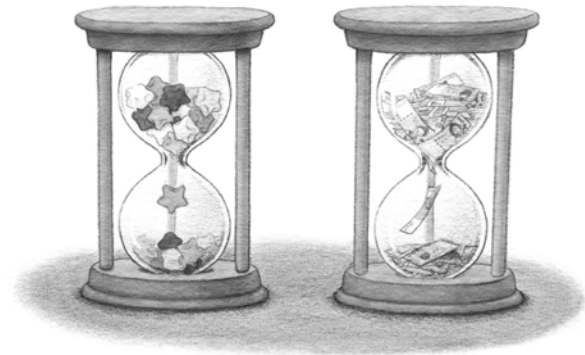
입대가 당장 다음날이란 말에 부랴부랴 회사에 휴가를 얻고, 한달음에 집으로 왔다. 아들은 아직 방에서 자는 듯했고, 집사람은 육군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떻게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입영통지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올 초 국방부에 입대 문의를 했을 때만해도 지원자가 많아 정기 입대 예정자는 빠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고 했는데…”

나의 혼잣말을 들었는지 뒤에서 아주 짧은 군인머리의 아들이 “아빠, 다녀오셨어요?” 한다. 가끔 아들이 못나 보였을 때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핀잔을 주곤 하였는데 짧은 군인머리를 하고 나온 아들을 보는 순간 25년 전 입대할 때의 딱! 내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동안 병역문제로 취업이 잘 안되어 의경 지원을 2번 했는데 떨어지고, 병무청에 ‘공석’ 지원이란 게 있어서 계속 시도했는데 날짜가 좀 빠르긴 하지만, 운 좋게 이번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어디 가냐는 물음에 답할 겨를도 없이 아들과 집사람을 태우고 시내로 내달렸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을 찾는데 도무지 간판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몇 번을 제자리를 돌고 있음을 내가 알았을



때 아들이 “아빠, 저 짜장면 사주세요” 해서 겨우 짜장면 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아주 어릴 적 엄마가 읍내 장날에 썬 옥수수를 팔아 내 운동회를 사오겠다며 나가신 후, 막차를 놓쳐 다음날 새벽에 오신 적이 있는데 그날 밤 만큼이나 길고 긴 후회의 밤을 맞았다. 거의 뜬눈으로 아들 군 입대 전날 밤을 보냈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육군 102보충대. 전국에서 참 많은 아들들이 부모, 연인, 친구들과 모여 들고 있었다. 입대 전 식전행사로 군악대의 연주와 태권도 시범, 예비 걸그룹의 공연, 그리고 군관계자의 인사말.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옆자리의 아들 생각뿐이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모두들 일어서서 마주 보라는 대대장님의 마이크 소리가 들릴 때야 아들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부모님, 아무 걱정 말고 건강하십시오! 잘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늠름하고 대견한 아들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본 우리 아들. 기대 이상으로 훌쩍 커 있었다. 연병장을 돌아 교육 강당으로 들

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까치발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돌아오는 길, 우리처럼 입대를 환송하러 온 사람들과 차들로 부대 앞은 복잡했다. 차들이 뒤엉켜 몇 십 분이 지났음에도 누구하나 경적을 울리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자꾸 눈물을 닦아내는 집사람에게 “뭘 그렇게 울어. 남자는 다 한 번은 다녀오는 거야...” 애써 먼 산을 바라보는데, “그러는 당신은 왜 울어?” 한다.

내 손에는 아들이 차에 두고 간 수첩과 지갑 그리고 액정 깨진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왜 그랬을까. 이리 후회 할 것을 왜 그날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리 못난 짓을 했을까. 그럼에도 밝은 표정으로 늙름하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말해 준 아들 목소리의 긴 여운이 못한 애비 마음을 달래주는 듯했다.

졸업 후 이 아빠보다 훨씬 더 용기 있고 사려 깊고 훌쩍 커 있던 아들을 아빠인 나만 모르고 있었다. 단지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대를 앞두고 여행은 못가도 게임이라도 실컷 해보고 싶었던 이제 갓 20세의 아들의 단면만 보았고, 입대 전 친구들과 5만 원씩 각출해서 노래방과 맛있는 밥 한 번 먹어보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빠는 우리 아들이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 이 아빠도 죽을 만큼 사랑한다. 네가 이 나라를 지킬 동안 이 못난 아빠는 우리 가족 더 잘 챙기고 회사일 더 열심히 할게. 사랑한다. 현역 우리 아들 파이팅!”

PS : 아들! 네가 입대한 날부터 아빠는 술, 담배 최대한 줄이고 용돈 아껴서 매월 5만 원씩 저축하기로 엄마와 약속했다. 이 적금은 우리 아들 제대하면 너를 위해 쓰일 거야. 입대 전 못 전한 아들 향한 아빠 마음이라 생각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금릉초등학교
2학년 1반 김선원입니다
작년에 보내드린 저금통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조금이지만 보내드려요 친구는 제가
바보 라고 하지만 저는 장난감보다.
어려운 분들이 따뜻하게 보내시는게
더 행복합니다 올겨울에도 힘들고
추운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중씨 약동
김선원 올림



딸의 수시를 도와준 감사한 담임선생님

김영주 학생의 이 편지

안녕하세요! 양희은의 수필교실

저는 고3 딸과 과학도수필을 하려는 딸 50여 명입니다.

문학 수시는 정말 지독한 담임선생님의 가슴 따뜻한 이야

기를 모으고요 열매가 반배로 늘려드립니다.

저희 딸은 김영주님에 왔고요 부모님보다 정말 사랑하

지만 선생님의 솔직한 말씀 없으면 정말 할 수 없는 우리 딸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정말인 것만 같아요 선생님의

부담과 딸도 사느라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믿고만 있는 딸도만

이 아들 줄만큼 애썼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선생님만 수필을 하든 딸이 없으면 못하든 딸이 없으면

수필을 하든 못하든 딸이 없으면 못하든 딸이 없으면

수필을 하든 못하든 딸이 없으면 못하든 딸이 없으면



모든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필을 신중하게 해
주시던 저가 잊지 않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한다면 딸이 최우선으로 믿고 있는 선생님의 사랑

이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인 것만 같아요

있었으면 선생님께서 딸에게 무조건 믿고 사랑해주셨으면

저희 딸은 정말 딸도만 선생님의 사랑을 믿고

있을 것만 같고 정말인 것만 같아요 선생님의 사랑을 믿고

있을 것만 같아요 선생님의 사랑을 믿고 있을 것만 같아요

있을 것만 같아요 선생님의 사랑을 믿고 있을 것만 같아요

있을 것만 같아요 선생님의 사랑을 믿고 있을 것만 같아요

있을 것만 같아요 선생님의 사랑을 믿고 있을 것만 같아요

있을 것만 같아요 선생님의 사랑을 믿고 있을 것만 같아요

있을 것만 같아요 선생님의 사랑을 믿고 있을 것만 같아요

있을 것만 같아요 선생님의 사랑을 믿고 있을 것만 같아요...

있을 것만 같아요 선생님의 사랑을 믿고 있을 것만 같아요

여성시대
사진방



어떻게 감수를 표현할지 지금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첫그레 무척 사랑을 받는데 선택말이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있어서 어땀이 많이 땀어주기도래 거보니 한제
 선생님까지 직접오셔서 많이 인제부담 나옴은 선택말을
 배우스키우 있는것을 보고 어땀이 많이 땀어주기도 표현한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늦은밤이...
 선택말이 시립보육아동원의 영유아수업 기관은 선택말과
 주수선진 어떻게 표현해야할지요.
 어려운 경험어시도 연습말이 지뢰 말은 선생님 덕분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선택말이 친화순서야
 듣기까지 연습의 음악양복화과 정말 힘든 사람들의 수련
 천사가 되기를 간절히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크신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도움 되어줄수
 있는 사랑이 되겠요. 선택말은 그렇게 할것입니다 약속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할래임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239님] 부산입니다. 매주 주말이면 우리 두 아들 중딩 큰아들과 초딩 작은아들이 아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기름이 흥건한 바닥을 열심히 닦으며 혼자 일하시는 아버지를 돕습니다. 힘들지만 묵묵하게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돕고 있는 아들들을 보고 있으면 든든하네요.



[2365님] 김장했어요. 일요일에 신랑 잘 비비고 있죠. 김장하고 나니 부자가 된 듯해요. 부러운 게 없어요. 신랑 고생했어요. 겨울살이 끝!



[7139님] 어머님 올해도 또 일을 벌이셨네요. 여섯 식구 먹는 건데 배추가 끝이 안보이네요.



[3161님] 여성시대의 사랑의 난방비 행사를 들고 지난 주말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데리고 연탄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적은 금액이고 작은 노력이었지만 아이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방문해 창고에 연탄을 한 장 한 장 쌓아드리며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참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대구에서 윤희 올림



[3933님] 딸이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주문해서 선물해 주었는데 먹을 수가 없네요. 매일 운전하는 차 모양을 따서 만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케익이어서.



아름다운 우리 옷, 그 전통을 잇다

IBK기업은행 강남구청지점 거래고객
박술녀한복 박술녀 대표

글 | 김하늘 (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 KBS 드라마 <추노>, <경성스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한복의 고운 선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점이다. 인기 드라마,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한복을 협찬해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한국은 물론 해외에도 한복의 우수성을 전하고 있는 박술녀 한복연구가를 만났다.

'한복'이라는 단어를 빼 놓고 감히 그녀의 인생을 말할 수 있을까? 밤잠을 줄여가며 30년 넘게 한복을 지어 온 박술녀 한복연구가. 한복은 이미 그녀에게 인생이요, 숙명이다.

26세 꽃다운 나이에 상경해 한복 명인 이리자 선생의 문하생으로 들어

가 한복 짓는 일을 배웠고, 자신의 이름을 건 한복 브랜드 '박술녀한복'을 세상에 내 놓았다. 박술녀한복은 이미 국내외 유명 연예인들이 가장 입고 싶어 하는 한복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박술녀한복이 국내 최고의 한복브랜드로 자리하는데, 각종 TV 프로그



램 협찬, 연예인 마케팅 등 매스컴이 한뫼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복에 대한 그녀의 뜨거운 열정과 장인정신이 없었더라면 이 만큼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보통의 경영인과는 마인드 부터가 다르다. 지금도 잘 짜인 고운 비단을 만나면 주저 없이 지갑을 연다. 보통의 장사꾼 같으면 재고 걱정에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비단 구입을 주저할 테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비단은 재고가 아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한 벌의 어여쁜 한복이다. 아직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만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 그 비단이 지닌 고운 결과 색깔을 살려 가치를 알아보는 이에게 보내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고 사명이다.

“예전에는 명절, 결혼식 등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한복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복 수요가 많았고, 그만큼 품질 좋은 고급 원단이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한복 수요가 줄어 잘 짜인 고급 비단을 찾아보기도 덩달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급 원단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지금도 주저 없이 달려갑니다.”

최고급 명품 한복을 지어내기 위해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발품을 파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그녀가 지어내는 한복은 특별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걸감은 물론 안감까지 좋은 소재를 사용해서 옷을 짓습니다. 몸에 닿는 부분이 부드럽고 편안해야 입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치마, 저고리, 속치마, 속바지, 버선, 비단신 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걸치는 모든 의복과 액세서리를 한 땀 한 땀 정교



하게 비느질하고 있습니다.”

입는 이가 행복한 옷을 짓는다는 그녀의 말이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오랜 시간을 들여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어내는 만큼, 박솔녀한복은 그 어떤 자리에 내놓아도 빛을 발한다. 박솔녀 한복의 아름다움과 의복에 담긴 숨은 노력을 가치 있게 생각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다.

“우리 가게에 오시는 분들은 한복에 대한 애정이 깊은 분들입니다. 수의 대신 한복을 입고 가시길 원했기 때문에 김자옥 선생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옷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전통을 지키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입니다.



일생에 한 번 뿐인 결혼식, 사랑하는 아이의 돌잔치에 입을 특별한 옷이기에 지방은 물론 해외에서 찾아오는 분도 계십니다.”

박솔녀한복을 찾는 고객 중에는 오랜 시간 인연을 맺어 온 이들도 있다. 부모가 한복을 맞춰 입던 가게를 찾아 자식들이 결혼 예복을 맞춰 입고, 그렇게 가정을 꾸린 부부가 아이의 돌 한복을 맞추러 다시 가게를 찾는다.

전통은 이렇게 대물림되는 것이리라.
 우리 의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전통을 대물림하는 일에 IBK기업은행
 강남구청지점 이원호 지점장도 동참
 하기로 했다.
 “박술녀한복을 방문할 때마다 이처
 럼 아름다운 한복을 짓기 위해 그간
 해오신 노력을 느끼고 갑니다. 장인정

신으로 한 땀 한 땀 한복을 지어 오신
 그날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늘 곁
 에서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버느질하며 한복 짓
 는 일을 해나가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박술녀 한복연구가.
 한복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노력은
 3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박술녀 한복연구가(왼쪽)와 IBK기업은행 강남구청지점 이원호 지점장(오른쪽)

■ 박술녀 한복연구가의 성공 노하우 3가지

1. 열정: 한복에 대한 열정과 애착이 지금의 박술녀한복을 만들었다.
2. 노력: 땀과 시간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3. 실력: 무슨 일을 하든 실력이 있어야 고객이 찾아온다.

박술녀한복

대 표 박술녀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5 (02-511-0617)

홈페이지 <http://www.hanbokhouse.co.kr>

내맘 같지 않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더 받을 방법은 없을까?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연말정산의 새로운 강자!

IBK 적립IRP

- 최대 115만5천원의 세액공제 가능(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주) 2015년 5월 개정 소득세법 기준, 근로소득만 있고 적립IRP 700만원 납입시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관련 세법의 재·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원리금 보장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을 자유롭게 운용
- 55세 이후(5년 이상 납입) 연금수령으로 노후대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5-1387호(2015.06.09) (심의대상 : 연금보험사)

* 이 퇴직연금은 예금저축 이상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며, 적용에 한하여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받지 못하며, 보호 한도는 권위의 다른 예금보통에 대한 금융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만원'이며, 50만원을 초과하는 내역은 국가보장되지 않습니다. 단 2년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한하여 50만원까지 보호 받습니다.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또는 www.ibk.com (02-511-0617)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및 연금의 인출이 있을 때는 IBK기업은행의 영업점이나 영업외(모바일)에 접속하여 연금징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객센터 ☎02-511-0617) IBK기업은행은 금융·보험을 받지 않습니다. (유리창) 또한 사생활이나 개인이 보유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02-700-0000, e-mail: ibkinfo@ibk.com)





식약처 인정
여성 갱년기 현상 개선
기능 식품

(주)건강사랑 '레드크레오'는 국내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8주간의 인체적용시험, 갱년기 지수(KI)와 폐경기 지수(MRS)의 개선을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 받은 갱년기 여성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기능성 식류농축액 P-estroHL

국내 갱년기여성 대상 8주 인체적용시험결과

에스트로겐 유사활성효과 확인

갱년기 상태(KI) 11가지 개선 확인

폐경기 상태(MRS) 개선 확인

엘라그산 31.92 mg/ day

출처 : 인체적용시험 결과 보고서(식류농축액의 갱년기 증상 개선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8주,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평행군, 플라세보-대조 인체적용시험(2014) ※ 인체적용시험조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신을
여성시대로 **초대**합니다”

양희은·서경석
입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9시 5분~11시

대전
92.5/91.3

삼척
101.5/93.1

춘천
92.3/88.9

서울
95.9

전주
101.7/94.3

대구
96.5

부산
95.9/106.5

제주
92.6(전월임)
92.1(상대빙)

내 생애 최고의 해

경남 함안의 고은숙 씨를 찾아서

글 | 성기에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차곡차곡 하루하루가 쌓여 일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건만 12월이 되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등이라도 떠민 것처럼 황망하기만 하다.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12월이면 고개를 돌려 자연스럽게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된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올해가 내 인생의 최고의 해였다고 자부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여성시대 가족 고은숙 씨는 2015년이 인생에 있어 최고의 해였다고 손꼽는데 주저함이 없다. 결혼 후 ‘재강이, 재운이 엄마’로 10여 년을 살았는데 비로소 ‘고은숙’이라는 이름을 찾은 해이기 때문이다. 이번 가을 동안 전국 단위의 큰 대회에 참가해 상을 3개나 받았으니 누가 보아도 최고의 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북 전주가 고향인 고은숙 씨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하동이 고향인 남편을 만나 결혼과 더불어 경남 함안에 등지를 틀게 됐다. 친구도 없고, 사투리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자리를 잡자니 외롭고 힘들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정식구들과 고향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다.

늘 섬처럼 떠돌던 은숙 씨였는데 어느 날 위층에 사는 아기엄마가 먼저 은숙씨네 집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위층에 사는 애



기엄마예요. 언니, 커피 한잔만 주이소.” 강한 부산사투리에 코맹맹이 소리를 버무려 들이닥친 애교만점 위층 새댁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내리 찾아왔다. 부산이 고향인 위층 아기엄마도 타지인 함안에 살며 혼자라는 생각에 늘 외로웠다. 타지에 등지를 틀었다는 점, 둘 다 젊은 아기엄마라는 점이 두 사람의 경계심을 무너트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단짝’이 되어버렸다.

5월 10일 열리는 함안 5일장에 유모차를 끌고 나가 시장을 보고, 애들을 위한 뮤지컬을 보거나 전시회장에 갈 때도 늘 함께였다. 그 사이 위층 아기엄마 김수미 씨는 딸 하나에 아들 둘을 가진 엄마가 되었고, 고은숙 씨는 아들 둘을 가진 엄마가 되었다.



큰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조금 숨통이 트였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 뭔가 배울 것이 없나 기웃거리다가 찾은 곳이 함안군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주 2회 요가수업이었다.

은숙 씨는 결혼 후 뒤차가 앞차를 받는 교통사고 당시 앞차에 타고 있다가 목과 허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다. 그 교통

사고의 후유증으로 목 디스크 판정을 받고 허리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다. 일주일에 3일 이상 물리치료와 침을 맞고 있었고, 위층 김수미 씨는 애들 셋을 건사하며 틈틈이 남편의 사업을 돕고 있던 터라 심신이 무던히도 고달팠다.

치료를 위해, 원기회복을 위해, 빠지지 않고 충실하게 요가수업에 참여했다. 몸에 착 달라붙는 요가복을 입고 6개월, 1년, 2년,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도 잘 돌리지 못하던 은숙 씨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앞쪽으로 구부러져 있던 어깨가 펴지고, 허리의 통증도 사그라지고, 팔 다리를 쭉쭉 펴니 키도 커진 듯하고, 피부색도 날로 환해졌다. 요가동작을 통해 아픈 곳을 찾아내고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도 익히게 됐다. 위층 김수미 씨도 마찬가지로였다. 자신의 몸 안에 숨어있던 유연함을 찾아내며 하루하루 달라짐을 체험했다. 두 사람은 몸의 정렬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렬까지 하게 해주는 요가를 접하고,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잔소리 하는 빈도수가 줄어든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렇게

요가를 시작한지 5년째. 요가수업에 업고 다니던 아이가 올해 유치원에 들어갔다.

5년 동안 빠지지 않고 수업에 참가하는 은숙 씨와 수미 씨는 유심히 지켜 봐온 요가선생님 최양이 씨가 요가대회에 출전할 것을 권했다. 가을에 열릴 대회를 위해 여름부터 연습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두 번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1시간 정도 요가를 하고 헤어지는 수업인지라 대회에 참가하기에는 여러모로 역부족이었다. 최양이 선생님의 지도 아래 은숙 씨와 수미 씨는 수업이 끝난 여성센터 강당에서 연습을 이어갔다.

가을이 수선스럽게 시작되던 9월, 창원에서 '경상남도 요가대회'가 열렸다. 차례가 되어 무대에 올랐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대라는 곳에 처음 올라가니 두근두근 심장 소리가 귀에 달아놓은 듯했다. 하지만 음악이 흐르고 호흡을 가다듬고 동작이 시작되며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 꼭 상을 받겠다고 나온 게 아니니, 최소한 실수만 하지 말고 그동안 익힌 동작을 정확하게 해내자. 그냥 이 순간을 즐기자.' 갑자기 가슴과 머릿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면서 행복한 마음이 전신을 휘감는 것 같았다.

마무리 동작까지 하고 무대를 내려오면서 무언가 해냈다는 기쁨이 찰랑찰랑 마음에 고였다. 엄지를 들어 엄마에게 응원을 보내는 아이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무뚝뚝하다는 경상도 남편들의 얼굴 가득 웃음이 담겨있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됐다. 누가 상을 받아 보자는 생각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일반부 2인조 3등, 함안의 고은숙 김수미 팀입니다.” 사회자의 말이 귓전에서 팔랑거렸다. 순간,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싶었지만, 이미 몸은 무대로 달려 나가고 있었다.

‘고은숙’이란 내 이름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려졌다는 그 자체가 신기했다. 상을 받은 그날 밤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잠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 후, 각 도의 수상자들이 모여 전국대회가 열렸다. 도



대회 때보다 동작을 업그레이드하고 연습에 박차를 가하며 대회 준비를 해나갔다. 전국대회에 나간다고 하니 손가락 모양 하나, 눈빛 하나, 호흡 한 모금까지 신경이 쓰였다. 근 한 달의 연습이 끝나고 참가한 전국대회에서 일반부

2인조 3등상을 거머쥐었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한 달 사이 연이어 상을 받으니 오히려 얼떨떨했다. 하루하루가 희열의 나날들이었다.

그리고 다시 가을이 익을 대로 익은 10월 말에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요가대회에 나가 대망의 1위를 했다. 뭐라 표현할 말이 없었다. 단지 ‘온 우주의 에너지가 고은숙, 김수미에게 집중된 날’이었다고 할 수밖에.



온 우주의 에너지가 모아졌던 축제의 가을이 가고 이제 겨울에 들어섰다. 하지만 은숙 씨의 요가수업은 끝나지 않았다. 내년엔 있을 전국대회를 마음으로 벌써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초등 학교 6학년인 아들 재운이와 함께 참가할 예정이다.

이제 어엿하게 요가대회에 나가 상을 받은 몸이니 요가를 대하는 태도가 그전과는 사뭇 다르다. 동작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는 마음자세가 더 깊어졌다고 한다.

“앞으로도 요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한 동작 한 동작, 한 호흡 한 호흡을 더 깊게 하고 싶습니다. 요가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이런 자세를 유지하고 싶은 게 앞으로의 바람입니다.”

요가를 통해 배운 몸과 마음의 유연함과 고요함을 생활에서도 실천하고 싶다는 바람은 이미 이루어진 듯하다. 2015년 인생 최고의 해였다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매년 최고의 해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코너 속 편지



일러스트 | 조신애

- 83 장용의 단필총 특공연대 대항군
 90 나의 연애시대 그녀의 특이한 이상형
 94 일요일엔 편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97 사랑으로 채워주신 아버지께
 100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장용의 단 · 필 · 총

특공연대 대항군

김상덕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저는 93년도 군번으로 X군단 직할 특공연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키가 179cm 이었고 몸무게가 50kg도 안 되어서 전형적인 갈비씨 약골 체격으로 특공부대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공부대는 뭐니 뭐니 해도 공수훈련이 단연 최고로, 공수훈련을 마치면 전투모와 왼쪽 가슴에 공수휘장인 '공수왕'을 달게 되는데요. 이 공수왕을 달아야만 진짜 특공부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수왕을 가슴에 달고 상병으로 막 진급하여 부대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군단 사령부에서 군단 예하부대의 전투력 측정 평가를 나간다고 대항군 임무에 투입할 대원 4명을 보내 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대의 훈련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에 한 번 빠져 보고 싶은 게 모든 부대원의 소망이었고, 대항군은 우리 부대 대원들에게 꿀보직으로 한 번쯤 가서 쉬고 싶은 아주 재미있는 훈련으로 공포탄 몇 발 쏘주고,

뛰어다니다가 잡혀주는 소풍 같은 거였습니다. ‘나도 거기 가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을 뿐 감히 제 짬밥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지요. 원래 대항군은 전역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말년 병장님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중대장님께서 잠시 후 4명의 중대원 이름을 호명하셨습니다. ‘가 병장, 나 병장, 다 상병!’ 그리고 김상덕!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헉!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마음속으로는 펄 듯이 기뻐지만 힘든 훈련을 나가는 중대원들 앞에서 속내를 보일 수 없었습니다.

지원 나간 부대에 도착하자, 그 부대의 대대장님과 대대 최고 행정관님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손수 타 주시면서 특공부대 힘들지 않냐 고생이 많다며 격려해주셨고 훈련은 내일부터니 오늘은 꼭 쉬고 내일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후 행정관님을 따라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희 4명은 그 식당에서 눈이 휘둥그레지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대도 나름 특공부대라고 타 부대보다 식사가 좋은 편인데, 사제 식당에서나 볼 수 있는 가스버너 위에는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제육찌개가 뽀글뽀글 끓고 있고, 군대에서는 구경하기도 힘든 반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맛있게 먹고 난 후 미리 마련된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모락모락 궁금중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행정관님이 ‘내일 잘 부탁한다’ 하신 것도 그렇고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가 병장님께 여쭙보았습니다.

“그건 말이다. 우리에게는 소풍 같을지 모르지만, 이 부대에게는 진급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전투방어 태세 평가는 제법 큰 훈련

인데 우리 대항군을 방어하면서 시간 내 전투 장비를 수리하지 못하거나 대항군인 우리가 중요 시설물을 파괴하면 부대 평가점수가 좋지 않게 나오겠지. 그러면 간부들은 진급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그러니까 서로 서로 적당히 뛰어다닙시다, 뭐 그런 거지. 니들도 내일 전력질주 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놈 있으면 가서 잡혀도 주고 적당히 해. 적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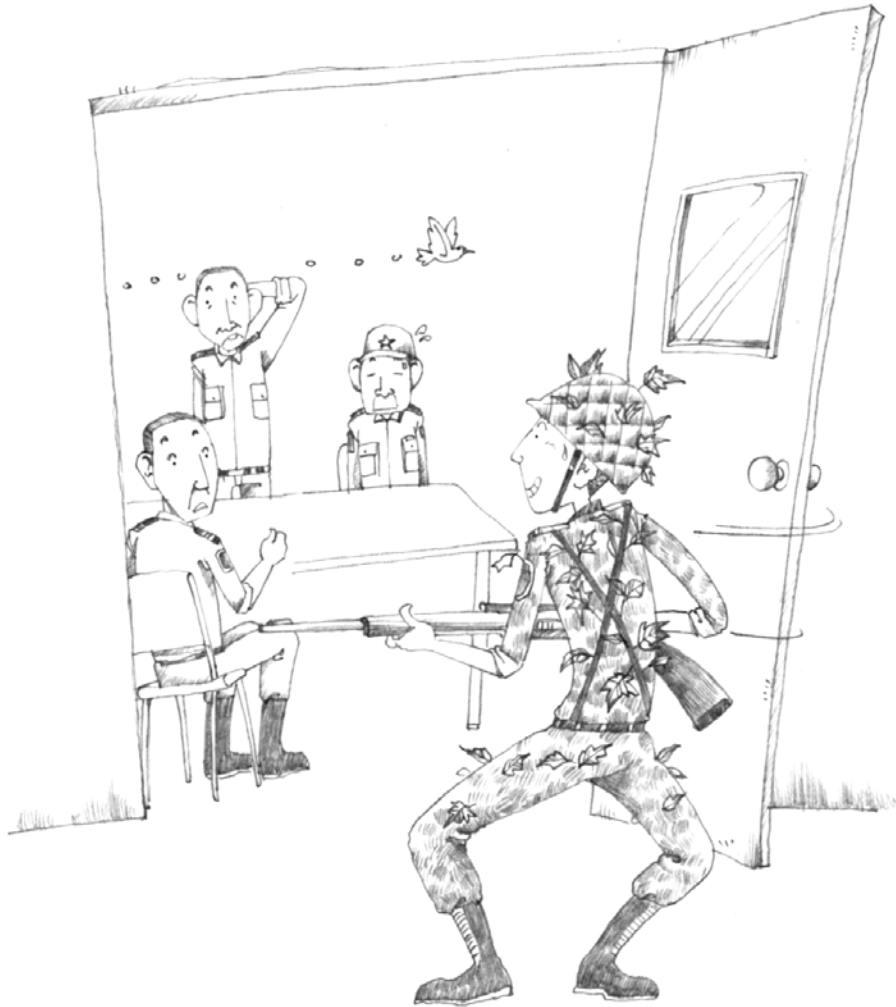
드디어 06시. 비상이 걸렸고 최고 고참이었던 가 병장은 4명을 2개 조로 나눠서 침투 경로와 파괴 목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각 조는 06시까지 내가 지정해준 장소에 도착해 대기하다가 06시 10분이 되면 각각의 목표로 타격해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군용 폭음탄을 터트리는 거닷! 알았나?”

나 병장과 저는 한 조가 되어 공동묘지를 진지로 정했습니다. 이날 아침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진지까지 찾아오는데도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전날 미리 와본 곳이어서 다행히 진지는 잘 찾아왔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타격 목표 건물까지는 미리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충 방향만 알 수 있었지 정확히 어떤 건물인지 도통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탕!”, “탕!”, “탕!” 가 병장님의 1조 쪽에서 공포탄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조 사람들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가 병장님은 경험 많은 특공대원답게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공격을 해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공격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지만 저랑 같이 있던 나 병장님은 “2분만 기다려! 1조에서 총소리가 났으니 적진이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면 그때 공격하자.” 적막 속에서 2분이 흐르고, 다시 나 병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먼저 1시 방향으로 뛰어 들어 갈게. 혹시 적이 나를 따라오면 너는 30초만 기다렸다가 11시 방향으로 뛰어 들어 가라!”

저는 나 병장님이 시킨 대로 30초 후 11시 방향으로 뛰어 들어 갔습니다. 가시거리가 약 3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뛰면 땀수룩 가면 갈수록 건물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고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건물이 드디어 보였습니다. “앗, 저기닷!” 하며 방향을 다시 잡고 달리는 순간, 바로 그 건물에서 적진으로 보이는 병사가 불쑥 나왔습니다. 저는 매일 7킬로미터 이상 구보와 산악구보로 단련된 터라 도망가는 데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처음 타깃으로 잡았던 목표 건물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폭음탄 티트르야 되는데...’ ‘총을 쏘면서 계속 떨까?’ ‘아니야 대충 뛰다가 날 따라오는 병사한테 잡혀줄까?’ ‘그러면 저 친구는 휴가를 가겠지?’ 그건 좀 속쓰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무 건물에나 들어가서 잡혀주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건물을 접수해 폭파한 것이 되고, 고참들한테도 안 혼날 것이고, 저 병사는 내가 자기에게 잡혀줬다고 고마워하겠지? 그래 서로 윈윈하자.

전략을 짜고 바로 보이는 건물의 문을 힘껏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나무문이라 발로 차니 ‘뿡!’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앗! 그런데, 그냥 창고인 줄만 알았던 이 건물 실내에는 어깨에 무궁화를 주렁주렁 달고 계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뿔싸! 이곳은 이 부대의 지휘본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무궁화의 주인공들은 저희랑 같이 오신 훈련평가 통제관님들과 이 부대의 대대장님과 참모님들이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북쩐!” 하면서 경례를 했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모든 장교님들도 눈이 휘둥그레지면

서 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저희 훈련통제관님께서 정신을 차리면서 “그래! 수고했다. 나가 있어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혈떡이는 숨을 고르면서 나오니 ‘앗!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부대의 지휘본부까지 뚫고 들어와 모든 지휘관들을 사살한 꼴이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훈련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총으로 쏘거나, 폭발물로 폭발을 시키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적이 지휘본부까지 뚫고 들어 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저희 본부인 미니버스로 돌아와 쉬고 있는데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전 훈련이 끝났는데도 이곳 부대원들은 아주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아침밥을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밥 먹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훈련이라 밥을 조금 늦게 먹나 보다’ 하고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버스 안 라디오 뉴스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냐’ 하는 생각에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저희 집이 성수대교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 부모님께서 이 시간에 성수대교를 자주 이용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 병장님께 허락을 받고 집에 전화를 걸기 위해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어느 막사 건물 앞에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집에 전화를 건지라 반가운 마음에 큰소리로 “엄마, 별일 없죠? 성수대교가 뉴스에 나오던데요!” 하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기 바로 앞에 막사 문이 열리면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한 어느 중위님 한 분이 “저기! 조용히 해라!” 하시는 것

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그 문 뒤에 테이블에 앉아 있던 수많은 간부님들요! 아까 지휘본부가 타격 당한 일로, 일명 한판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건의 주인공인 제가 또 다시 일을 친 것입니다. 완전 일타쌍피입니다. 전 도망치다 시피 버스로 돌아와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 했습니다.

지휘소 타격으로 인해 그날 아침밥은 점심시간이 다 지나서야 먹게 되었고 식당에서 마주친 부대원들은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주임원사님께서 어제 그렇게 맛난 음식까지 해주면서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 두 번째 B부대의 훈련에 참가했을 때는 맛난 음식도 없었고 숙소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한 그 부대에서 가장 낙후된 막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부대의 소문이 여기까지 퍼진 거지요. 이날 훈련은 새벽부터 시작되어 밤늦게까지 진행되었는데 전날 그 부대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주 양전한 대항군이 되어 살살 뛰고 순순히 잡혀 주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군 시절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그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을 때, 그 방에 계시던 장교님들의 놀란 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그날 이후 짝센 군 생활을 하게 되셨을 20사단 정비대대 부대원님들! 이 방송을 빌려 미안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수대교 사고로 많은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가족과 떨어져 열심히 훈련하고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대한민국 장병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나의 연애시대

그녀의 특이한 이상형

정영봉 | 인천광역시 서구 세자봉로



학창시절 저는 큰 키에 흰칠한 외모로 여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학생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여학생들이 먼저 다가와서 호감을 표현했었고 그런 여학생들이 꽤 많았기에 연애에 대해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의 부탁으로 여대에 다니는 여학생들과 소개팅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소개팅에서 만났던 여학생 네 명과 종종 만나서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명의 여학생 중 세 명의 여학생들은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 뽀뽀로 안부를 묻는 음성 메시지를 남겨 놓기도 하고, 집으로 전화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며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만나자는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친구니깐 안부를 묻고 심심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뜻으로 연락을 해오는 걸로 모르는 척 받아주었지만 내심 모두들 내게 관심이 있고 나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라는

생각에 어깨가 우쭐해졌습니다.

그런데 네 명 중 딱 한 명의 여학생이 제게 그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만나면 저에게 이야기도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었는데, 저에게 연락처도 묻지 않았고 그래서 헤어지고나면 다른 여학생들과 다시 만나기 전까지 그 여학생의 소식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어, 요것 봐라. 다른 여학생들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 하는데 너만 관심이 없다 요건데 키도 작그만하고 예쁘지도 않으면서도 그런단 말이지. 오기가 발동을 하였습니다. 모두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여학생의 이상형이 알고 싶어 은근슬쩍 이상형 이야기를 꺼냈는데 다른 여학생들은 키 크고 잘 생기고 공부 잘하고 유머 감각 있고 남자답고 카리스마도 좀 있고... 이상형을 말하는데, 그 여학생은 자기가 키가 작은 편이라 키 큰 남자보다는 조금 작은 남자가 좋고, 부담스럽게 생긴 잘 생긴 남자보다는 인상이 편안한 사람이 좋고, 만났을 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이상형은 남자는 외모적으로 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아주 정말 요봐라, 내가 이상형이 아니라 이건데 키 큰 남자를 싫어해 내가 부담스럽게 생겨서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오기로 객기로 그 여학생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말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학생에게 뽀뽀 음성 메시지로 안부를 남겼고, 둘만의 데이트 신청도 했고, 처음으로 여학생에게 러브레터를 썼습니다. 그 여학생은 뽀뽀를 듣고 답도 없었고, 전화를 하면 왜 전화했었냐고 물어봐 당황스럽게 했고, 둘이서 만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 만남을 피하려 하는 눈치였고, 러브레터를 받고도 편지 받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니 '별로 예쁘지도 않으면서 감히 나를'이라는 약간의 오기로 그 여학생에게 다가갔고, 내가 그녀의 이상형이 아니라는 말에 약이 올라 멈출 수가 없었고, 그러다 내 반응에 너무 무덤덤하고 무관심하자 애가 타면서도 그 여학생이 매력 있어 보였고, 오기가 아닌 진심으로 그 여학생과 사귀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라면 내가 군대에 다녀올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한번 마음먹은 일에는 쉽게 변화지 않을 강단과 의지가 있으며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이라는 생각에 그 여학생이 진심으로 좋아졌습니다.

매일 전화를 하고 그 여학생의 생일날 커다란 곰 인형을 사 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학교에서 타던 자전거를 팔아 그 여학생에게 목걸이를 선물할 정도로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부터는 그 여학생도 차츰 관심을 보이고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일 년 넘게 걸려 처음으로 좋아하는 여학생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우리는 연인이 되어 그 후 9년의 긴 연애에도 단 한번도 헤어짐 없이 만남을 가지다 결혼을 했습니다.

가끔 아내와 저의 20센티미터 넘는 키 차이로 인해 주위분들이 어떻게 부부가 되었냐며 연애할 때 남편 분 외모 때문에 아내 분 마음고생이 많았겠다고 속 모르는 말을 합니다. 아내는 지금도 이상형이 키 큰 남자 잘 생긴 남자가 아니라 키 작고 개성 넘치게 생긴 외모의 남자 코미디언 같은 스타일이 딱 내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특이한 이상형 때문에 제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엔 편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신민섭 |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저는 군대 제대를 2개월 남겨 두고 아버지께서 간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꼭 아버지가 다시 기력을 회복하셔서 “아이구, 우리 민섭이 왔어” 벌떡 일어나 안아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옆에 없는 아버지를 여전히 그리며 이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아버지, 하루를 산다는 건 참... 가슴에 못다 핀 꽃을 피우는 것처럼 안간힘이 드네요. 아버지가 계신 곳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메워갑니다.

저에게 있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내가 우리 가족들 때문에 산다”예요. 항상 아들과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매일 웃음으로 우리를 맞으셨던 아버지. 지금도 그 애길 떠올리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 작은 가슴이 그리움과 눈물로 가득 채워집니다.



아버지 식사는 잘하고 계신가요? 그곳에선 늘 건강하시구요? 술하고 담배는 끊으신 거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에게 그러셨다면서요. “네 형이 저렇게 소심하고, 예민해서 내가 어떻게 가니...” 제 걱정만 하시던 아버지의 마음, 매일 지겹다고 느꼈던

아버지의 잔소리가 이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어릴 땐 아버지의 간섭이 짜증나고 화나고, 그랬어요. 이제 와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지만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네요.

아버지, 제 나이 20대 중반. 다른 친구들은 다 잘 지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제 삶은 어려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도 모르겠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서 벗어나 내 현실을 살아야 하는데 동생,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모든 걸 감당하기엔 힘이 들고, 아버지의 큰 울타리가 너무 그립네요.

보고 싶어요, 아버지. 가슴에 못 다한 말만 자꾸 맴도는데, 그 어디에서도 아버지의 음성은 들을 수 없고, 그저 추억 속의 아버지만으로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엔 버겁네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 좀 더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부럽지 않게 방황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될 걸 후회돼요.

아버지께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건강조차 가족에게 양보할 만큼 열심히 사셨다는 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네요.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 아버지. 백 번을 불러도 이제 아버지가 나를 돌아봐 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다가오는 겨울이 무척 추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마음에 두고 다짐해 봅니다. 아버지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게요.

아버지, 지금 제 눈물을 보시고 속상해서 또 그러실까요?

“사내자식이 마음이 저렇게 어려서... 또 운다. 울어.”

아버지랑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잡은 아버지의 차가운 손만 제게 남아 있네요. 오늘도 어린 시절 함께했던 추억으로 그리움을 달래며 아버지께 마음의 글을 써봅니다.



일요일엔 편지를

사랑으로 채워주시신 아버지께



최미옥 |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힘드셨죠? 마흔이라는 젊은 나이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빨래, 청소, 집안일에 돈까지 벌며 작은 딸을 혼자 키우시느라 무던히도 애쓰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대단했음을 기억합니다. 남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 사람 돈에 환장했네, 환장했어. 꾀꾀” 혀를 차고 무시하고 괘시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는지 늘 동분서주하셨습니다.

철없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못 보고 “아빠, 남들은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며 사는데 왜 우리 식구들만, 나만, 다른 사람한테 굶신거리려야 해? 왜 나만 이렇게 전부 참고 살아야 하냐고” 불공평한 세상이 원망스럽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제가 실



망스러웠으며, 아버지의 무능함이 늘 불만스러웠습니다.

특히, 운동회나 소풍이라도 가는 날이면 도망치고 싶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웃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사진을 찍곤 할 때 저는 혼자서 빵을 사 먹고 즐거워 보이는 가족들을 부럽게 쳐다봐야 했습니다. 한 번은 무용복을 거꾸로 입었는데,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면서 “재 좀 봐, 무용복을 거꾸로 입었어. 도대체 재 부모는 애도 안 보고 뭐하는 거야?” 아무렇지 않게 하신 말에 ‘우리 아빠는 돈 벌러 가서 못 오셨고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 한마디 못 뱉고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저 친구들이 웃도 제대로 못 입는 나를 놀릴까 진전공공하며 운동회 하는 날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돌아오는 일상이 싫었고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모두 미웠어요. 그래서 학교에 간다 하고서 학교에 가지 않고, 이 동

네 저 동네에 숨어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했지만 아버지는 늘 남의 집 품팔이를 하러 가느라 전화를 받지 못하셨지요.

그러나 그것도 며칠 못 가 제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이곳저곳 헤매 시다가 남의 집 벚섯밭에 혼자 있는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멀리서 뛰어오는 아버지를 보며 ‘이제 엄청나게 혼나겠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미안하다. 다 아빠 잘못이다” 저를 꼭 안아주셨지요.


지금도 그때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때 저를 꾸짖으셨다면, 아버지에 대한 어긋난 오해로 다시는 아버지께서 찾지 못하는 곳으로 영영 가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쩌면 그때 돈이 없는 가난도 지독하게 싫었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다는 애처로움에 방황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니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남에게 심한 말을 들으면서까지 악착같이 버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이 못난 딸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셨던 거지요?

아버지의 연세 예순다섯. “나 안 죽었어. 지금도 어디든 불러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하시는 아버지! 이제는 저에게 모든 짐을 맡기고 편안하게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며 사시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가 소중하게 키워주신 딸! 이제야,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존경 그리고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젊은 청춘을 딸에게 모두 바친 아버지,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 아버지를 언제나 자랑스러워하는 딸, 미옥이 올림


 일요일엔 편지를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조윤녀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이른 새벽 일어나 일하러 가는 당신에게.

오늘은 당신 나갈 때 밥 챙겨줘야지 결심했는데, 내게도 하루 쉬는 일요일이라 몸이 말을 듣지 않네요. 평일엔 직장으로 출근, 주말에는 주유소에서 알바를 뛰는 당신을 보면 마음이 착잡해요. 당신이 두 가지 일을 하고, 나 역시 이렇게 쉬지 않는데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빛 같느라 허덕허덕하네요.

처음 당신에게 그 말을 들었던 때가 생각나요.

“당신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 주식을 좀 했는데 빛이 생겼어.”

저는 당장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중년의 나이에 무일푼으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 신혼 때는 젊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먹여 살릴 아이들이 있잖아요. 당신이 원망스러웠고 언제까지 이 힘든 일을 계속해야 하나 삶의 회한을 느꼈지만, 시

간은 지나더군요.

우리는 살던 아파트를 팔고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의 달세를 내야하고, 또 다달이 90만 원을 5년 동안 갚아야 하는 일상. 거기다 아이는 아직 고등학생이라 돈이 많이 들어갈 때고, 한 달 급여가 통장에 찍히면 스르륵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어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그럴 땐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고 인근의 학교 운동장을 찾아 몇 바퀴를 숨차게 달리곤 합니다. 그러다가도 가끔씩, 일없이 무심히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당신이 보기 싫어질 때도 있어요.

‘저 인간이 그리 큰일을 저질러놓고, 밥이 넘어가? 확! 그냥 상을 얹어!’

나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북받쳐 오는 화를 억누를 수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당신이 건강히 일을 두 개나 하면서 차곡차곡 빚 갚아 나가고 있고, 나 또한 미우나 고우나 당신이 있어서 때론 친구처럼 때론 사이좋은 남매처럼 우린 일상을 함께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이 시련을 견뎌내면 우리의 삶은 좀 더 풍요로워지겠죠?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일하는 당신, 건강해야 해요. 내가 좀 더 신경 쓰며 챙길게요. 그래도 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해요. 언제나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25년 전, 미용실에서 만난 그 남자

그림 | 김곡, 우영미

※〈여성시대〉 가족 김영순(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씨의 사연을 각색한 만화입니다.



다음날 저녁 퇴근길.
그 미용실 앞을 지나치는데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해풍대는 제 모습에 그냥~ 반해 버렸다는 그 남자!

이후, 그는 1년 동안 저의 착실한 전담 미용사가 됐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고요?





정리 습관

글 |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트위터 아이디 @suhcs)
일러스트 | 조신애

아이를 키우는 집은 청소를 해도 티가 안 난다. 불과 한 시간 전에 청소를 했지만 집안은 다시 엉망이 된다. 부모가 깔끔한 성격인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렵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마음도 안 정되고 일도 잘 될 듯싶다. 저 녀석은 저렇게 기본적인 정리정돈을 못해서야 무슨 일 하나라도 제대로 할까 싶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

만 그때뿐,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부모가 또 다시 정리에 나서게 된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정리정돈에 약하다. 정리정돈을 잘하기 위해서는 ‘조직화’ 능력이 발달해야 하는데 이 능력은 두뇌에서 전두엽이 관장하는 능력이다. 전두엽은 두뇌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부위로 만 25세 정도까지 성숙한다. 그래서 그 무렵이 되면 정리정돈하는 것이 나아지고 좀 더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25세라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부모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물론 그 전에도 꾸준히 아이의 정리 능력을 높여줘야 한다. 하지만 기대 수준은 낮춰야 한다. 아이들은 못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러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아이가 미워지고 심하게 야단치게 된다. 하지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기에 야단을 친다고 아이가 더 나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위축되고 불안해져 두뇌 발달만 늦어질 뿐. 그러니 아이가 하는 꼴을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겠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아이를 연습시켜야 한다.

아이의 정리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된다.

첫째, 정리는 하루에 한 번만 한다. 아이에게 물건을 사용하고 나면 바로 제자리에 넣어두라는 부모가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고 특히 유아기에는 절대 피해야 한다. 유아기에 알맞은 정리 횟수는 하루에 한 번이다. 어지럽히며 놀 수 있는 환경이 아이들의 지능 발달에 유리하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 나는 낮 시간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어지럽히고 놀도록 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크게 음악이 나오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둘째, 정리 방법은 쉬워야 한다. 깔끔한 성격을 지닌 부모들은 자기가 원하는 정리 방법을 갖고 있어서 아이 역시 그 방법을 따르기를 원한다. 책꽂이에 꽂힌 책이 높낮이가 들쭉날쭉해도 짜증이 나고 장난감도 여러 종류가 섞여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런 성격의 부모가 아이에게는 최악이다. 유아기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부모가 원하는 자리에 일일이 정돈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큰 바구니나 상자 몇 개를 준비해, 종류별로 크게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는 편이 낫다.

셋째, 조금 더 큰 아이들의 경우엔 한 단계씩 정리 능력을 높여가도록 노력한다. 보통 부모들은 평소에는 그냥 내버려두다가 엉망이 된 상황을 보고 버럭 화를 내곤 한다. 참다 참다 못 참으니 한마디 한 것이겠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정리 습관이 좋아지지 않는다. 체계적으로 조금씩 발전시켜야 아이가 나아지고, 아이도 스스로 나아진다는 것을 느껴야 자신감을 갖는다.

먼저 매일 같은 시간을 '정리 시간'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저녁 9시로 정해놓고 이 시간이 되면 아이와 함께 방을 정리한다. 처음에는 반드시 부모가 함께해 주고, 아이의 실력이 늘면 조금씩 뒤로 물러난다. 정리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한다.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 보통은 큰 책→큰 장난감→작은 책→작은 장난감→필기구 순이 적당하다. 많은 아이들이 정리를 하라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다. 그리고 뭘 해야 할지 모르니 자꾸 만졌을 하게 된다. 순서를 정했다면 큰 종이에 순서를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둔다. 처음에는 그 순서대로 엄마가 아이와 함께 정리를 한다. 좀 익숙해지면 엄마가 뒤로 물러나 아이에게 순서를 불러준다. 그 다음에는 아이 혼자 정리해보게 하고 엄마가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잘되면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검사 주기를 늘려간다. 이러

게 하면 아이가 정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정리 시간은 15분 정도로 한정한다. 되도록 간편하고 신속한 정리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는 오래 해선 안 되고 빨라야 하며, 그래야 시간이 남아 더 재미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아이에게 말해준다. 정리하는 것에 약한 아이들을 위해 깔끔하게 정리된 방의 사진을 찍어 붙여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책 정리를 잘 못한다면 책이 잘 정리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책꽂이 옆에 붙여놓는다. 상당수의 아이들이 '정리된 상태'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때 시각적으로 참고할 수 있게 하면 아이에게 정리의 개념을 심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넷째, 혼을 내기보다는 효과적인 방법을 부모가 먼저 고민해야 한다. 아이가 옷을 아무 데나 벗어놔서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많다. 이럴 때도 그냥 혼을 내기보다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본다. 집에 올 때 아이들은 '집에 가면 ○○를 하고 놀아야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그렇다 보니 어제 옷을 아무 데나 벗어두어 야단맞고도 이를 까맣게 잊어버린다. 이 경우엔 조금 귀찮더라도 아이가 나갔다 들어와 놀이 공간으로 가는 길목에 의자를 놓아둔 다음, 거기에 크게 '옷'이라고 써 붙이고 아이의 방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붙여둔다. 그렇게 하면 아이도 옷 갈아입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아이를 키워야 문제가 해결된다. 아이 스스로 알아서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아이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도와줘야 한다. 무슨 일이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성공할 수 있게 아이를 이끌어야 한다. 야단을 쳐서 자신감을 꺾고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게 만들면 성공은 더 어려워진다.

경험은 늙지 않는다



서경석 | 여성시대 진행자

‘로버트 드 니로’와 ‘앤 해서웨이’가 출연한 영화 <인턴>을 보았다. 큰 기대 없이 대배우 드 니로와 예쁜 배우 해서웨이가 출연했으니 ‘기본 이상은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영화관을 들어섰는데, 나올 때의 마음은 들어갈 때의 그것과 완전히 달라졌다. 강력한 한 방은 없었지만, 그런 한 방이 채워줄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느낌들이 내 안에 꽉 차 있었다.

이 글이 책자에 실릴 때쯤이면 아마도 극장에서 내려지겠지만, 혹시라도 DVD나 VOD로 영화 전체를 보실 분들을 위해 내용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으려 한다.

이 영화는 은퇴한 직장인인 로버트 드 니로가 워킹맘 앤 해서웨이 사장의 인터넷 의료 회사에 시니어 인턴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어 벌여지는 일을 그렸다.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어쩔 수 없이 채용하게 된 70대 노인 인턴사원을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건강한 생각과 노련하면 서도 성실한 태도를 보고 결국 젊은 여 사장은 물론 회사 직원 전체가 그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고 회사의 위기 또한 헤쳐 나가는 이야기.

여성시대에서 소개되는 사연 중에도 로버트 드 니로처럼 6, 70대 어른들의 이야기가 종종 있다. 감각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아도 살아온 세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묵직한 이야기에 빠져들게 된다. 어르신 취취자 분들의 사연 외에도 여성시대는 내게 수시로 로버트

드 니로를 느끼게 해준다. 바로 양희은 누님. 20대 때 집안의 가장이 되었지만, 어떤 가장들 못지않게 가족을 잘 보살피며 살아왔고, 가수 생활 4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고 공연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양희은 누님. 방송 시작 전, 방송 중에도 노래가 나가는 시간, 1, 2부와 3, 4부 사이 10분 정도의 틈에 누님과 나누는 대화는 정말 내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게 해준다.

스물셋에 코미디언이 된 후 지금까지 줄곧 나는 새로운 것, 기발한 것만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던 것 같다. 속된 말로 ‘구닥다리’에 해당되는 것에는 눈길도 안주려 했다. 물론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삶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경험과 노련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 우리는 흔히 일이 잘될 때엔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제 잘난 맛에 까불다가, 뭔가 시련에 부딪히면 급하게 도움을 찾아 헤매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부모님 말씀 들어서 손해 볼 것 없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 또한 있어서 어른의 충고를 흘려듣고 실수를 범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경험 많은 70대 인턴 로버트 드 니로와 열정 많은 30대 CEO 앤 해서웨이가 함께하여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내듯이 긴 세월을 온 몸으로 부딪혀온 ‘경험’의 국물에 모험과 변화를 추구하는 ‘열정’의 소금이 더해지면 비로소 기가 막힌 맛의 사골 곰탕이 탄생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EXPERIENCE NEVER GETS OLD.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신순규가 전하는 일상의 깨달음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글 | 한창완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삶. 지나친 정보의 양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정작 놓치는 삶. 이런 이야기들을 때마다 순간 공감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스스로 그런 삶에 너무 익숙해져버려 문제의식조차 놓치고 사는 일상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증권가의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신순규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일상적인 것들의 소중함을 전하는 글을 통해 비장애인들에게 보이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운다.

에세이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저자 신순규는 녹내장과 망막박리로 아홉 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며 스스로의 삶

을 만들어왔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권유로 피아노를 배웠고, 열세 살에 떠난 미국 순회공연 중 오버브룩 맹학교의 초청을 받아 더 큰 세상을 '보기' 위해 열다섯 살에 홀로 미국 유학을 떠났다. 오버브룩 맹학교를 다니던 중 음악에 대한 역량이 모자란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일반 고등학교로 진로를 바꾼 뒤 공부에 매진한다.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MIT에서는 경영학과 조직학 박사 과정을 공부했다. 장애인에게 장벽이 있는 직업을 연구하다가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에 대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내가 첫 성공사례 되지”고 결심하고는 교수의 길을 포기한 뒤 투자은행 JP모건에 들어가 신용 애널리스트로 일하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시각장애인의

로서는 세계 최초로 '금융 분야의 최종 자격증'이라 불리는 CFA를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여러 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들과 미국 재력가들이 투자고객으로서 찾는다는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에서 증권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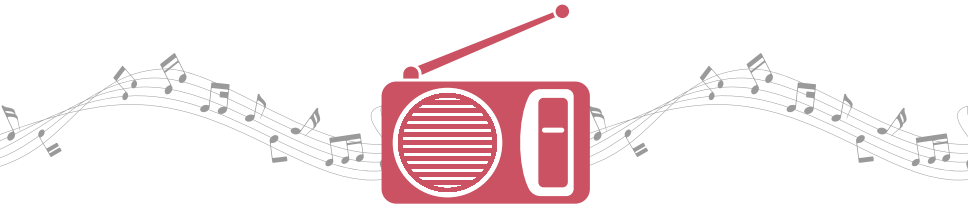
그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볼 수 있는 사흘이 주어진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 속의 수필을 이야기하며 자신에게는 사흘이 아니라 단 하루 24시간만이라도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해볼까하는 바람을 서문에 적었다. 그의 가장 큰 바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과 아내의 표정을 보고 싶다고 했다. 자신의 표정에 사랑의 눈빛으로 미소를 보여주는 아내의 얼굴과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는 어린 아들의 투명한 눈망울을 보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늘 내가 바라보는 방향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본다. 그러나 저자의 잔존한 바람 속에서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닌, 날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놓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현대인 대부분은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거부할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

하고 사는 듯하다. 그래서 정작 보아야 할 것들,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는 아이들의 눈빛, 화가 났을 때도 감출 수 없는 엄마의 애뜻한 표정, 외로움으로 어두워진 배우자의 얼굴빛 등을 보지 못한다. 대중매체나 소셜 네트워크에 사로잡히기 쉬운 오늘, 거기에서 눈을 떼고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더 자주 바라본다면, 세상의 '소음'에서 빠져나와 우리에게 소중한 '신호'를 더 의식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자는 매일 3시간의 통근시간을 혼자 출근한다. 걷고 기차 타고 다시 같이타고 다시 걷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익숙해진 일상은 평범한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는 보이지 않는 삶속에서 더욱 진정한 고민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시각을 크게 갖게 되었으며 그러한 노력이 좌고우면하는 미국 증권시장의 투자환경에서도 자신만의 시각으로 탄탄한 중심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한다. 보이는 삶에서 놓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시 챙겨보게 만드는 책이다.

신순규 지음 | 판미동 | 2015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신**을
여성시대로 **초대**합니다



여성시대
양력은 · 서경섭입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9시 5분~11시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마산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월약) / 97.1(삼대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금리가 오를수록 적금가입하는게 낫겠지'
이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금리인상 안심적금

상품개요 가입기간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우대이율을 적용받는 자유적립식 적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상품유형	가계우대정기적금(개인)	상호부금(개인사업자)
가입금액	월 한도 300만원 (재예치금액은 월불입한도 제외)	
계약기간	1년 (자동재예치 신청시 최대 2회 재예치 가능)	

고시이율 **연 1.60%** (2015.11.5 기준, 세전) ※ 고시이율은 시장금리와 연동되어 추후 변동가능

우대이율 금리상승 우대이율 적용조건을 충족하고 적금의 가입기간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시 다음의 우대이율 적용

기준금리 상승	연 0.20%p
기준금리 미상승	연 0.05%p

※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재예치금액은 고시이율만 적용함

※ 금리상승 우대이율 적용조건 관련 안내는 영업점으로 문의바람

준법감사인 실무필 제 2015-2655호 (2015.11.10) SP094 4차(2015.11.20) 2015.11.20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부족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연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별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서는 고객센터(☎966-29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BK(금융감독의 분쟁이구제) 제도를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민행(☎032-8474100)과 BK(금융감독의 금융분쟁조정) 센터(☎152-1123)에 문의하십시오. 개인정보: 1588-1111(112)에 문의하십시오. e-mail: bank@ibk.com